



NEW TEPS

입문편 문법
실전 250+

Grammar

정답 및 해설

1 (b) 2 (a) 3 (d) 4 (b) 5 (b)
 6 (d) 7 (d) 8 (a) 9 (a) 10 (c)
 11 (b) 12 (d)

- 1 A: 연주하고 있는 밴드가 누구예요?
 B: 잘 모르겠지만, 멋진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 빈칸은 동사 sound의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어구이므로, 형용사인 (b)가 정답이다.

band 밴드, 악단 **sound** ~인 것 같다, ~처럼 들리다
wonderful 훌륭한, 멋진

- 2 A: 세금 보고서 본 적 있어요?
 B: 좀 전에 당신에게 제출한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 빈칸 앞에 <동사(handed)+목적어(it)>가 있으므로 다음에는 '~에게'라는 뜻의 간접목적어가 이어져야 알맞다. 동사 hand는 간접목적어 쓸 때 전치사 to를 수반하므로 (a)가 정답이다.

tax report 세금 보고서 **hand** 제출하다

- 3 A: 연체료를 안 내려면 이 자전거를 반납해야 해.
 B: 나도 방금 그 생각을 했어.

가이드라인 strike는 '~이 떠오르다'는 의미로 쓰일 때 진행형으로 쓰지 않으며 전치사 없이 사용하는 타동사임에 유의한다. just와 의미가 통하는 것은 과거형 (d)이다.

return 돌려주다 **late fee** 연체료 **strike** (생각이) 떠오르다

- 4 A: 너의 오래된 코트가 마치 신상품처럼 보여.
 B: 고마워. 방금 세탁했거든.

가이드라인 빈칸은 had의 목적격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목적어인 it(your old coat)이 세탁되는 것이므로 수동 관계를 나타내는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알맞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brand new 신상품의

- 5 A: 야구 경기를 보지 않을 거니?
 B: 응, 우리 팀이 또 지는 것은 못 보겠어.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watch의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다. watch와 같은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취하므로 선택지 중 동사원형인 (b)가 정답이다.

lose 지다

- 6 노조 협상자는 경영진에게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고려해 보도록 설득했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persuade의 목적격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에게 ...하라고 설득하다'라고 할 때 persuade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d)가 정답이다.

union 노조 **negotiator** 협상자 **persuade** 설득하다
administrator 관리자, 경영자

- 7 금요일에 오백 교수님은 설문 조사 실시를 통해 우리가 추가 학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공고하셨다.

가이드라인 빈칸 이하는 announce의 목적어가 되므로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들어가야 한다. announce는 (b)처럼 전치사 없이 바로 간접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며 그 앞에 반드시 전치사 to를 붙여야 한다. 따라서 (d)가 정답이다.

announce 발표하다, 공고하다 **credit** (대학의) 학점
conduct a survey ~을 조사하다

- 8 일단의 과학자들이 보건의료 담당자들에게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가이드라인 inform은 'A에게 B를 알리다'라고 할 때 inform A of B의 형태로 쓰며, B가 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inform A that +주어+동사> 형태가 된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A(목적어) 자리에 전치사 없이 바로 사람이 온 것에 주의한다.

cure 치료제[법] **health worker** 보건의료 담당자

9 <고급 여행 정보>에서 제시하는 조언을 따르면 여러분은 다음 여행에서 수백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save는 '비용·시간·노력'을 덜어준다, 줄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유형을 취한다. 빈칸 뒤에 비용에 해당하는 직접목적어가 나오는데, 빈칸에는 간접목적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목적격인 (a)가 정답이다.

tip 조언 save 덜어준다

10 마크는 교통 정체로 인해 꼼짝 못하여 회사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caused의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다. caus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c)가 정답이다.

stuck (~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꼼짝 못하는 **traffic jam** 교통 정체 **cause** 야기하다 **arrive** 도착하다

11 (a) 제나에게 과학 숙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니?
(b) 다른 실험을 고르라고 제안했어.
(c) 그럼, 넌 그녀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구나?
(d) 응, 너무 식상하게 여겨졌어.

가이드라인 (b)의 suggest는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형태를 취하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우나, 간접목적어 대신 <to+목적격>을 쓰므로 suggested to her가 되어야 한다.

suggest 제안하다 **experiment** 실험 **unoriginal** 독창적이지 아닌

12 (a)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푸쉬카르 낙타 축제를 위해 인도의 푸쉬카르 시에 일 년에 한 번 모여왔다. (b) 그들은 자신들의 낙타와 그 외 소나 양 같은 다른 가축들을 데려와 팔고 거래를 하며 즐긴다. (c) 이것은 그런 종류의 축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질서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d) 이것은 매우 독특한 행사라서, 보통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푸쉬카르 낙타 축제에 참가한다.

가이드라인 (d)에서 attend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에 참석하다'가 되어 전치사 to를 덧붙이기 쉽지만, 바로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이다. 따라서 attend 다음에 전치사 to를 빼야 한다.

gather 모이다 **fair** 박람회, 축제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livestock** 가축 **chaotic** 무질서한 **be used to** ~에 익숙하다 **unique** 독특한

1 (a) 2 (c) 3 (d) 4 (a) 5 (a)
 6 (c) 7 (b) 8 (d) 9 (b) 10 (a)
 11 (d) 12 (c)

- 1 A: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지?
 B: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어.

가이드라인 빈칸은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로, Who is it?의 간접의 문문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주어+동사>이므로 (a)가 정답이다.

knock at a door 문을 두드리다 **have no idea** 전혀 모르다

- 2 A: 샘과 일리즈가 결혼한다는 말을 왜 내게 하지 않았니?
 B: 나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어.

가이드라인 문장 앞에 부정어 Not이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 knew에서 일반동사 과거형을 대신 받는 조동사 did를 이용해 도치시킨 (c)가 정답이다.

get married 결혼하다 **not until** ~이 되어 비로소 ~하다

- 3 A: 어젯밤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시청했어.
 B: 아, 나도 그랬어.

가이드라인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에 대해 '나도 그렇다'라고 할 때 <So+조동사+주어> 구문을 써야 하고, 시제가 watched로 과거이므로 (d)가 정답이다.

presidential debate 대통령 후보 토론회

- 4 A: 타사는 그다지 친절한 사람은 아니야.
 B: 맞아, 내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딱 한 번뿐이었어.

가이드라인 문장이 only once라는 부사구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야 한다. 예전 일을 이야기한 과거 시제가 되어야 하므로 조동사의 과거형 did를 이용해 도치시킨 (a)가 정답이다.

- 5 A: 네가 방해하고 있잖아. 내가 이 책 읽고 있는 거 안 보여?
 B: 그것 좀 내려놓고 잠시 내 말 좀 들어봐.

가이드라인 put down처럼 <동사+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는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를 둔다. 명령문이므로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a)가 정답이다.

interrupt 방해하다 **put down** 내려놓다

- 6 녹색 채소는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을 물리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가이드라인 문두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나오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주어는 green vegetables이고 빈칸 뒤의 동사 contain을 대신하여 조동사 do가 주어 앞으로 온 (c)가 정답이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역시 **contain** 함유하다
fight off 물리치다 **cancer** 암

- 7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학교에 초대되었다.

가이드라인 <의문사+to부정사>가 쓰여 '~할지, 해야 할지'라는 의미를 갖는 명사구가 된다. children은 show의 간접목적어이므로 바로 뒤에 따라나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준다'는 의미로 (b)가 정답이다.

fire fighter 소방관 **invite** 초대하다, 초청하다
in the event of ~의 경우 **fire** 불, 화재

- 8 아이가 어질러 놓아서, 그의 부모는 그에게 그것을 치우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make는 '~하게 시키다'라는 뜻이고,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clean up은 대명사 it을 목적어로 취하면 동사와 부사 사이에 두어 clean it up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d)가 정답이다.

make the mess 어질러 놓다 **clean up** 치우다, 정리하다

9 가족 모임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색다른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이다.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온 가족'이라는 뜻의 어구가 들어가야 한다. '전부의, 모든'이라는 뜻의 whole은 정관사 the 뒤에 오므로 (b)가 정답이다.

reunion 재회, 친목 모임 **opportunity** 기회 **have fun** 즐기다
exotic 이국적인, 색다른 **location** 장소

10 공장 개축이 그런 대로 빨리 끝난다면, 직원들은 3월 1일 까지는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들어갈 자리이다.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하므로 (a)가 정답이다.

renovation 수리, 개축 **complete** 완성하다 **employee** 직원
resume 재개하다 **duties** 근무, 직무

11 (a) A: 채소 껍질 벗기는 칼 봤니? 찾을 수가 없어.
(b) B: 여기, 방금 감자 깎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
(c) A: 아, 됐어. 안 가져갈게.
(d) B: 아냐, 난 다했어. 여기 있어.

가이드라인 '여기 있어'라는 뜻으로 Here you go, Here you are, Here it is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d)의 Here goes you를 Here you go로 고친다. '자, 시작하자'라는 뜻으로 Here goes!를 쓰기도 하지만 (d) Here goes you는 문맥상 어색하다.

vegetable peeler 채소 껍질 벗기는 데 사용하는 기구
peel 껍질을 벗기다

12 (a) 범고래는 '살인 고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고래들과 달리 큰 먹잇감을 사냥하고 죽이기 때문이다. (b) 일부 바다 서식지에는, 바다표범과 바다사자가 아주 풍부해서 범고래의 주요 식량원 역할을 할 정도이다. (c) 범고래는 이 동물들 중 하나를 공격할 때 처음에는 그것을 공중으로 던져올려 힘을 못쓰게 한다. (d) 일단 먹잇감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면, 범고래는 먹기 시작한다.

가이드라인 (c)에서 fling up은 <동사+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인데, 목적어로 대명사가 올 때 동사와 부사 사이에 놓인다. 따라서 flinging it up이 되어야 한다.

orca 범고래 **prey** 먹이 **habitat** 서식지 **seal** 바다표범, 물개
plentiful 풍부한 **fling up** 던져올리다 **disable** 무력하게 하다
fight back 저항하다 **feed** 먹다

1 (a) 2 (a) 3 (b) 4 (b) 5 (b)
 6 (d) 7 (b) 8 (c) 9 (d) 10 (c)
 11 (b) 12 (d)

- 1 A: 영화 보러 자주 가세요?
 B: 네, 보통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봐요.

가이드라인 현재형으로 묻는 A의 질문은 현재의 지속적인 습관에 대한 것이므로, B의 대답 역시 현재 시제가 되어야 알맞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at least** 최소한

- 2 A: 근무한 지 오래되셨나요?
 B: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2년 됐습니다.

가이드라인 A가 현재형으로 묻는 것으로 보아 B는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오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시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long-term 장기적인

- 3 A: 리처드가 수강을 철회할지 궁금해.
 B: 분명히 그는 고려하고 있을 거야.

가이드라인 문맥상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려 중이다'라는 말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현재 진행형이 들어가야 알맞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drop the class 수강을 철회하다 **apparently** 명백히, 겉으로 보기에는

- 4 A: 주말 동안 뭐 했어?
 B: 친구와 미술관에 갔어.

가이드라인 지난 주말(over the weekend)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과거 시제로 대답해야 한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art museum 미술관

- 5 A: 뉴욕에서 티파니를 보았니?
 B: 아니,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녀는 떠나고 없었어.

가이드라인 문맥상 B가 도착한 시점보다 더 먼저 티파니가 떠난 것이므로, 과거보다 앞선 때를 나타내는 과거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알맞다. 따라서 had p.p. 형태인 (b)가 정답이다.

- 6 다음 주 월요일에 상원이 다시 소집되면 이민법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빈칸에도 미래 시점이 와야 하지만, 조건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므로 현재형인 (d)가 정답이다.

immigration bill 이민법 **resume** 재개하다 **the Senate** 상원

- 7 품종에 상관 없이 모든 개가 갖고 있는 귀 도관은 인간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

가이드라인 개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로 쓴 (b)가 정답이다.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는 (d)처럼 진행형을 쓰지 않음에 유의한다.

regardless of ~와 상관 없이 **breed** 품종 **ear canal** 귀 도관

- 8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자, 남부 연합군은 기세가 꺾였다.

가이드라인 **by**는 시간 앞에 쓰여 '~까지는'이라는 뜻으로 그 시점까지의 완료를 나타낸다. 따라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지 3년째라는 과거 시점보다 앞선 때부터 그때까지의 완료를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시제인 (c)가 들어가야 알맞다.

Civil War 미국 남북전쟁 **Confederate Army** 남부 연합군 **lose momentum** 기세가 꺾이다, 탄력을 잃다

9 지각한 학생들이 교실에 도착할 때에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끝내셨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by the time은 '~할 때까지는'이라는 뜻으로, 주로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는데, by the time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에서 현재형 make는 의미상 미래를 나타낸다. 따라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의 완료를 나타내므로 주절은 미래완료인 (d)를 써야 한다.

tardy 늦은, 지각한 **make it** 도착하다 **conclude** 마치다

10 경찰은 지난달에 접수된 것보다 이번 달에 더 많은 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이드라인 지난달과 비교하여 이번 달(this month)이라는 현재의 한시적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crime report 범죄 신고

11 (a) 켄, 걱정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b) 보고서를 깜박 잊고 집에 놓고 왔다는 것을 지금 막 알았어.
(c) 카플란 교수님 수업에 널 보고서 말아야?
(d) 응, 오늘 오후까지 마감이거든.

가이드라인 realize는 '깨닫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인식이나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따라서 (b)의 과거 진행시제(was just realizing)는 과거형인 just realized로 고쳐야 한다.

realize 깨닫다 **due** 마감인

12 (a) 사해는 항상 요르단강이 물을 공급해 왔고 근처 산에서는 샘이 흘러넘쳤다. (b) 하지만 현재는 농부들이 상류 지역을 관개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강의 흐름이 줄어들었다. (c) 게다가 광물을 추출하는 기업들이 날마다 바다 밖으로 물을 퍼내고 있다. (d) 그 결과 2060년쯤에는 사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d)에서 by the year 2060이라는 부사구로 보아,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의 완료를 나타내므로 미래완료 시제가 나와야 알맞다. 따라서 미래 시제인 will disappear를 미래완료 시제인 will have disappeared로 고쳐야 옳다.

Dead Sea 사해 **feed** 먹이다 **spring** 샘 **runoff** 흘러넘침 **nearby** 근처의 **upstream** 상류의 **irrigation** 관개 **pump out** 펌프로 퍼내다 **extract** 추출하다 **disappear** 사라지다 **completely** 완전히

1 (a) 2 (c) 3 (c) 4 (d) 5 (b)
 6 (c) 7 (b) 8 (c) 9 (d) 10 (d)
 11 (c) 12 (c)

- 1 A: 취업 집단 면접은 어땠어?
 B: 우리를 면접한 사람이 정말 친절했어.

가이드라인 who interviewed us는 주어인 The ma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주어인 The man의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A가 과거 시제로 묻고 있으므로 역시 과거 시제를 쓴 (a)가 정답이다.

group job interview 취업 집단 면접

- 2 A: 오늘 저녁식사는 정말 근사하겠다.
 B: 응, 모든 요리가 맛있어 보여.

가이드라인 빈칸에 들어갈 동사의 수는 each에 일치시켜야 한다. each는 단수 동사로 받으며, look은 '~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으므로 (c)가 정답이다.

course 차례로 한 접시씩 나오는 요리

- 3 A: 하루에 얼마나 많이 달려요?
 B: 4마일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four miles는 복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4마일이라는 거리는 한 덩어리로 취급하여 단수 동사로 받으므로 (c)가 정답이다.

feel ~한 느낌을 주다

- 4 A: 괜찮은 책을 추천해 주실래요?
 B: 존 스타인벡의 <생쥐와 인간>이 훌륭한 책이에요.

가이드라인 주어가 책 한 권이므로 단수 동사로 받아야 하고, 문맥상 be동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d)가 정답이다.

recommend 추천하다 **read** 읽을거리

- 5 A: 파티에 누구 데려올 사람 있어요?
 B: 매트와 키스가 나와 함께 갈 거예요.

가이드라인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뜻이고 복수 동사를 취한다. 가까운 예정을 나타내는 be going to를 이루는 be동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b)가 정답이다.

- 6 야생동물 보호 단체는 태평양 상어의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이드라인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일치되어야 하는 주어는 the number of(~의 숫자)이므로 단수 동사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wildlife 야생동물 **protection** 보호 **drop** 감소하다

- 7 야구 경기를 관람한 팬들은 최종 점수에 매우 놀랐다.

가이드라인 주어는 The fans이므로 복수 동사로 받아야 하고, 상태를 나타내는 be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으므로 (b)가 정답이다.

attendance 참석

- 8 그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인해 여전히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most of는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복수 동사로 받고, 단수 명사가 나오면 단수 동사로 받는다. of 다음에 the high school이 단수 명사이므로 동사도 단수형이 와야 하는데, remain은 자동사라서 (b)처럼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c)가 정답이다.

off limits 출입 금지의 **extensive** 광범한 **renovation** 보수

9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자연을 새롭게 느끼고 돌아갔다.

가이드라인 〈many a+단수 명사〉는 〈many+복수 명사〉처럼 '많은'이라는 뜻이지만 단수 동사로 받는다. 따라서 (d)가 정답이다.

appreciation 감상, 평가

10 일부 정치인들에 따르면, 부자는 현재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가이드라인 주어인 the rich는 〈the+형용사〉의 형태로, rich people을 가리키므로 복수 동사형으로 받고, need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으므로 (d)가 정답이다.

politician 정치인 **currently** 현재

11 (a) 왜 토마토를 내버렸니?
(b) 몇 개가 상하기 시작했어.
(c) 그래,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괜찮았어.
(d) 그렇게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

가이드라인 (c)에서 the rest of는 이어지는 명사의 수에 따라 단수, 복수형이 결정된다. 뒤에 복수형인 them이 나오므로 the rest 역시 복수 취급을 하여 동사도 복수형인 were를 써야 한다.

throw out 버리다 **turn bad** 상하다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12 (a)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거나 제시간에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 문제를 겪을 수 있다. (b) 이는 흔한 문제로, 전 세계 공항 여행객들에게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c) 지연의 주요 원인은 안개, 폭풍과 같은 날씨나 활주로를 미끄럽게 만드는 빙판 상태 등이다. (d) 유감스럽게도 기상 문제가 공항에서 지연의 원인 중 70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가이드라인 주어가 길 때 중심 단어를 찾아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자주 출제된다. (c)에서 A major cause for delays의 주어는 delays가 아니라 cause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와야 한다.

develop (병·문제가) 생기다 **travel** 여행 **airplane** 비행기 **arrive late** 늦게 도착하다, 연착하다 **depart** 출발하다 **on time** 정시에, 정각에 **common** 일반적인, 흔히 있는 **traveler** 여행객 **delay** 지연 **fog** 안개 **thunderstorm** 폭풍, 뇌우 **icy** 얼음에 뒤덮인 **runway** 활주로 **slippery** 미끄러운 **unfortunate** 유감스러운, 불행한 **solution** 해결책, 해법

1 (c) 2 (c) 3 (c) 4 (c) 5 (a)
 6 (c) 7 (c) 8 (a) 9 (b) 10 (c)
 11 (b) 12 (c)

- 1 A: 우편이 도착했어요?
 B: 한 시간 전쯤에 배달되었어요.

가이드라인 B의 주어 It이 가리키는 것은 the mail(우편물)이고 deliver(배달하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an hour ago라는 부사구로 보아 시제는 과거이므로 (c)가 정답이다.
deliver 배달하다

- 2 A: 접시가 두 조각으로 깨져 있어요.
 B: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가이드라인 happen은 자동사로만 쓰이므로 수동태로는 쓸 수 없다. 접시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이므로 접시가 깨진 일은 과거 시제인 happened로 나타내야 알맞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plate 접시

- 3 A: 칼의 어머니는 그를 어떻게 벌주셨니?
 B: 그는 석 달 동안 잔디를 깎아야 했어.

가이드라인 <(make+목적어+동사원형)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 수동태로 바뀌면, (be made+to부정사) 구문이 된다.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인 동사원형을 수동태에서 to부정사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punish 벌주다 **lawn** 잔디 **mow** (잔디를) 깎다

- 4 A: 컴퓨터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정말 기뻐.
 B: 맞아, 우리의 IT 팀이 그것을 처리했어.

가이드라인 주어인 it은 the computer virus를 가리키므로 '처리되다'라는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는 말로 보아 이미 처리된 것이므로 과거 시제인 (c)가 알맞다.
deal with ~을 처리하다, 다루다

- 5 A: 네가 속한 동아리는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아.
 B: 응, 신입 회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

가이드라인 keep -ing는 '계속 ~하다'의 뜻으로 문맥상 현재 회원 수가 늘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제인 (a) keeps가 정답이다.
rise 오르다, 증가하다

- 6 모닝 커피 한 잔은 전세계 수백 만 사람들에게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가이드라인 주어인 모닝 커피가 consider의 대상이 되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necessity 필수품

- 7 백금은 녹지 않고 고온을 견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platinum이 know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be known for는 '~로 알려지다, ~로 유명하다'라는 뜻이고, 객관적 사실이므로 현재 시제를 쓴 (c)가 정답이다.
platinum 백금 **withstand** 견디다 **temperature** 온도 **melt** 녹다

- 8 테이스티 브랜드 땅콩 버터는 빵 위에 부드럽게 발리며 먹을 때마다 놀라운 맛을 보증합니다.

가이드라인 spread는 타동사와 자동사 둘 다로 쓰이는데, 여기서 '발리다, 퍼지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쓰였다. 이 경우, 형태는 능동이지만 수동의 의미로 쓰였으며, 타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spread jam on bread/ spread the bread with the cheese와 같이 쓴다. 따라서 정답은 (a)이다.
smoothly 부드럽게 **guarantee** 보증하다 **bite** 한 입, 한 번 물기

9 직원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주어인 Something은 do의 대상이 되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수동태에 조동사가 포함될 때는
<조동사+be+p.p.> 형태가 된다.

ensure ~을 보장하다 **workplace** 직장, 일터

10 주변의 수마일에 걸쳐서, 화산 폭발을 앞두고 몇 분간 땅
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가이드라인 주어인 the ground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진 것이므
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문맥상 과거 시제가 어울리므로 (c)가 정답
이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부정사
가 온다는 점에 주의한다.

shake 흔들리다 **lead up to** ~의 전조가 되다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

11 (a) 이 모자는 우리 삼촌이 내게 주신 거야.
(b) 정말 너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c) 나에게 너무 화려한 것 같지 않니?
(d) 전혀 안 그래. 삼촌이 감각이 좋으시구나.

가이드라인 suit는 주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서 '~에게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b)와 같은 형태의 수동태로는 쓰지 않는다. 따라
서 능동태로 It really suits you라고 해야 맞다. 참고로 '~에 적합하
다'라는 뜻으로 be suited for의 형태도 가능함을 알아 두자.

suit ~에 어울리다 **fancy** 화려한 **not at all** 전혀 아닌

12 (a) 멕시코 남부와 중앙 아메리카의 고대 마야 문명의 역
사는 다소 신비스럽다. (b) 이 지역은 일찍이 BC 1800
년에 마야인들이 정착했으며, 수세기 동안 그들은 정글에 거대한
석조 도시를 건설했다. (c) 그러나 서기 8세기 또는 9세기 무렵
에, 그들 제국의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다. (d) 고고학자들은 여전
히 무엇이 마야 문명의 붕괴를 이끌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애쓰
고 있다.

가이드라인 (c)에서 disappear는 '사라지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므
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또한 by the 8th or 9th century AD라는
부사구로 보아, 과거 특정 시점까지의 완료를 나타내는 과거완료 시제
가 되어야 알맞으므로 was disappeared를 had disappeared로
고쳐야 한다.

civilization 문명 **mystery** 신비 **settle** 정착하다 **construct**
건설하다 **huge** 거대한 **empire** 제국 **archaeologist** 고고학자
collapse 붕괴

1 (d) 2 (d) 3 (b) 4 (d) 5 (b)
 6 (a) 7 (b) 8 (a) 9 (b) 10 (b)
 11 (d) 12 (c)

- 1 A: 폭풍이 아직도 이쪽으로 오고 있나요?
 B: 아뇨,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appear는 '~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따라서 (b)와 (d)가 가능한데, 폭풍이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미 방향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완료 부정사인 (d)가 들어가야 알맞다.

appear ~처럼 보인다, ~인 것 같다

- 2 A: 너의 새 신발이 어디 있니?
 B: 아, 난 그걸 사지 않기로 결정했어.

가이드라인 decide는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데, 신발을 사는 주체는 나이므로 (a)와 같은 수동태는 맞지 않다. 따라서 능동태인 (d)가 정답이다. to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not을 붙인다.

- 3 A: 내가 그걸 도와줄게.
 B: 네가 도와준다면 정말 고맙지.

가이드라인 appreciate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b)가 정답이다. 빈칸 앞의 your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give A a hand A를 도와주다 **appreciate** 고맙게 여기다

- 4 A: 왜 내게 문자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았니?
 B: 자동차를 타고 있었어.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잖아.

가이드라인 빈칸 앞의 it은 가주어이고 to text가 진주어이며,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부정사 앞에 <for+목적격>으로 명시한다. 빈칸은 is의 보어인 unsafe로 시작해야 하므로 (d)가 정답이다.

text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 5 A: 교수님이 강의 끝나고 나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셔.
 B: 알겠어, 늦게까지 남는 건 상관 없어.

가이드라인 mind는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뜻이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b)가 정답이다.

mind 꺼리다, 싫어하다

- 6 유럽에서는 18세기까지는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가이드라인 start는 목적어로 동명사나 to부정사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정확한 과거 시점임을 알 수 있고 주체가 유럽 사람들이므로 동명사나 to부정사의 수동태나 완료형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a)가 정답이다.

house cat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in large numbers** 대량으로

- 7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remember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할 때는 동명사를 취하고,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라고 할 때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여기서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을 뜻하므로 (b)가 알맞다.

defendant 피고 **claim** 주장하다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르다

- 8 부모가 대학에 다닌 아이들은 그들도 대학에 갈 확률이 더 높다.

가이드라인 <be likely to+동사원형>은 '~할 확률[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9 사람들은 이민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뉴스에서 그들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듣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be used to가 '~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쓰인 to는 전치사이므로 동명사를 목적어로 수반한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negative 부정적인 **immigrant** 이민자

10 다이어트는 힘들 수 있지만 진심으로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해볼 가치가 있다.

가이드라인 '~할 가치가 있다'는 표현으로 <be worth+동명사>를 쓴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같은 뜻으로 <be worthy of+동명사>나 <be worthy to+동사원형>을 쓸 수 있다.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stay fit** 건강을 유지하다 **undertake** 떠맡다, 착수하다

11 (a) 짐을 다 싸고 갈 준비가 된 것 같구나.
(b) 응, 택시가 곧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c) 그럼, 여행 잘하기를 바라.
(d) 고마워. 고양이 밥 주는 거 잊지 마.

가이드라인 forget도 remember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동명사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d)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feeding을 to feed로 고쳐야 한다. (a)의 you're packed는 구어체에서 '짐을 다 챙긴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packed 짐을 다 챙긴 **any minute** 곧, 조만간 **feed** 먹이를 주다

12 (a)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병에 걸려 귀가 안 들리고 앞을 못 보게 되었다. (b) 그녀가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녀는 한 특별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c) 일생 대부분 동안, 그녀는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전쟁 종식을 위해 싸우는 데 헌신했다. (d) 1968년에 그녀가 사망할 무렵에는, 그녀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이드라인 dedicate oneself to는 '~에 헌신하다'라는 뜻인데, 이때 to는 전치사이므로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c)에서 fight는 fighting으로 바꿔야 한다.

deaf 귀가 안 들리는 **blind** 앞을 못 보는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household name** 아주 잘 알려진 이름

1 (c) 2 (a) 3 (c) 4 (b) 5 (c)
 6 (c) 7 (a) 8 (a) 9 (b) 10 (d)
 11 (d) 12 (c)

- 1 A: 꽃에 관한 다큐멘터리 어땠어?
 B: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해.

가이드라인 빈칸은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다큐멘터리가 '흥미로운'이라는 뜻이 어울리므로 (c)가 알맞다. 감정을 나타내는 어구 중에서 (a)와 같은 과거분사는 사람이, (c)와 같은 현재분사는 사물이 주어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documentary 다큐멘터리, 기록물

- 2 A: 강도가 걱정되지 않아요?
 B: 네, 전 항상 문을 잠그지 않고 뒀요.

가이드라인 빈칸은 목적격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목적어인 the door와 unlock은 수동 관계에 있으므로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burglar 강도

- 3 A: 전화를 받지 그래요.
 B: 아,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울리게 내버려둘 거예요.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다. 사역동사 let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나, 수동이나에 따라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 여기서는 능동 관계이므로 동사원형인 (c)가 정답이다.

ring (벨이) 울리다

- 4 A: 수지에게 우리의 절차를 얼마 동안 가르쳐야 하죠?
 B: 이번 달 말까지 그녀가 완전히 교육을 받았으면 해요.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다. 문맥상 목적어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입장이므로 수동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과거분사인 (b)가 들어가야 한다.

procedure 절차, 순서 **fully** 완전히

- 5 A: 유전학 강의가 개설 중이라는 걸 알았니?
 B: 응, 강의 목록에 실려 있는 걸 보았어.

가이드라인 목적어인 it(genetics class)이 목록에 실려지는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의 수동 관계를 나타내는 과거분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genetics 유전학 **notice**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list** 목록에 실다

- 6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올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분사구문의 부정 표현에서 어순을 묻는 문제로, 부정어 Not은 분사 바로 앞에 온다.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주어와 understand는 능동 관계이므로 (c) Not understanding이 맞다.

risk 위험 **flu shot** 독감 예방 주사

- 7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가 향후 10년 안에 80억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expect의 목적격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expect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a)가 정답이다.

expert 전문가 **billion** 십억 **surpass** 능가하다, 뛰어넘다
decade 10년

- 8 몇 시간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변호사는 그의 고객이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데 판사가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선택지로 보아 사역동사의 의미를 갖는 get에 관한 문 제임을 알 수 있다. 사역동사 get은 목적어(judge)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a)가 정답이다.

intense 격렬한 **client** 고객 **innocent** 무죄의 **charge** 혐의

9 화학 문제에 대한 교수의 설명은 학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made의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자리이다. 목적어인 the students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태가 되게 하다는 뜻이므로 과거분사인 (b) confused가 들어가야 한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분사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과거분사를, 사물인 경우에는 현재분사를 주로 쓴다.

professor 교수 **explanation** 설명 **chemistry** 화학
confused (사람이) 혼란스러워 하는

10 경찰로부터 도망칠 길이 보이지 않자, 범인은 자수할 수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 두 절이 접속사 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앞 절이 분사구문임을 알 수 있다. 문맥상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d)가 정답이다.

obvious 분명한 **escape** 탈출, 도망 **criminal** 범인 **have no choice but to** ~할 수밖에 없다 **give oneself up** 항복하다, 자수하다

12 (a) 제임스, 괜찮아? 네가 비명 지르는 것을 들었는데.
(b) 응, 아무것도 아냐. 걱정 마.
(c) 그럼 다행이지만,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d) 뭔가가 팔 위를 기어가는 것 같았어.

가이드라인 (d)에서 목적어인 something과 목적격 보어인 crawl은 능동 관계에 있으므로 과거분사가 아닌 현재분사를 써야 한다. 따라서 crawled를 crawling으로 바꿔야 맞다.

scream 비명을 지르다 **relief** 안심 **crawl** 기어가다

13 (a) 코알라가 전혀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놀랄지도 모르겠다. (b) 그것의 이름은 호주 원주민 언어인 다락어의 gula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c) 전에 한 번도 gula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유럽 이주민들은 그것의 생김새가 서양의 꿈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 동물을 꿈이라고 불렀다. (d) 실제로 코알라는 유대류이며, 그 종으로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다.

가이드라인 (c)는 두 절이 접속사 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앞 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쳐야 한다.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생략하고, 주절보다 시제가 앞서므로 완료형 분사(having p.p.)를 쓴 뒤, 부정어인 never를 그 앞에 붙이면 된다. 따라서 They had never seen을 Never having seen으로 고쳐야 한다.

koala (bear) 코알라 **Aboriginal** 호주 원주민의 **tongue** 언어, 말 **settler** 이주민, 개척자 **resemblance** 유사성 **in actuality** 실제로 **marsupial** 유대류

1 (a) 2 (a) 3 (c) 4 (b) 5 (d)
 6 (c) 7 (d) 8 (b) 9 (c) 10 (c)
 11 (d) 12 (d)

- 1 A: 내가 전에 제인을 만난 적이 있던가?
 B: 응, 웰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가이드라인 두 절을 연결하면서 빈칸 뒤에 주어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선행사 the one이 사람을 가리키므로 (a)가 정답이다.

- 2 A: 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B: 응, 그럴 경우에는 브라운 대학에 갈 거야.

가이드라인 문맥상 '그럴 경우에는'이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A의 말을 관계대명사로 받은 (a)가 알맞다. (d)는 in that case라고 하면 가능하다.

accept 입학시키다

- 3 A: 거트루드는 여전히 비행을 두려워하지?
 B: 응, 그녀는 여행할 때마다 상당히 긴장해.

가이드라인 whenever는 '~할 때는 언제든지, ~할 때마다'의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이다.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므로 whenever 다음에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쓴 (C)가 정답이다.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nervous** 긴장한

- 4 A: 클리프턴 토머스가 누구인지 나한테 좀 알려줘.
 B: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희곡을 쓴 작가야.

가이드라인 두 절을 잇는 관계사가 필요한데, 빈칸 뒤에 주어와 동사, 보어가 모두 갖춰져 있으므로, plays를 수식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b)가 들어가야 알맞다.

remind 일깨우다 **play** 희곡

- 5 A: 이 돼지고기 바비큐 맛있지 않아, 그렇지 않니?
 B: 응, 우리가 미국에서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

가이드라인 선택지에 나온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고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와 다른'이라는 뜻의 different from 뒤에 '우리가 먹는 것'의 의미로 what we eat을 쓴 (d)가 정답이다.

barbecued pork 돼지고기 바비큐 **totally** 완전히
the states 미국

- 6 상원의원은 기금 모금 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두 절을 잇는 접속사와 뒤 절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문맥상 앞 절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는 (c) which가 정답이다.

senator 상원의원 **claim** 주장하다 **fundraiser** 기금 모금 파티
clearly 분명히

- 7 사이비 종교 집단 회원들은 신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자의 명령을 따랐다.

가이드라인 they believed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삽입절이 들어간 형태이다. 이 삽입절을 제거하면 빈칸에는 전치사 from의 목적어와 두 절을 잇는 어구, 즉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선행사인 the man이 사람을 가리키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쓴 (d)가 알맞다.

cult 사이비 종교 집단

- 8 오늘날 살아 있는 육지 동물 중에 치타의 속도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land animal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부정어인 no가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b) that이 정답이다.

match 대적하다

9 가족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막내의 값비싼 의료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빈칸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c) what이 알맞다. what little they had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medical treatment 의학적 치료

10 로마 검투사들은 5만 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응원하는 콜로세움에서 상대와 싸웠다.

가이드라인 빈칸 앞에 선행사인 Colosseum이 장소를 나타내는 어구이고, 이어지는 관계절에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모두 있으므로 관계부사가 오는 것이 맞다. 따라서 (c) where가 정답이다.

gladiator 검투사 **match** 상대, 적수 **Colosseum** 로마의 원형 경기장 **spectator** 관중 **cheer on** ~을 응원하다

11 (a) 범죄를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결정을 못 내렸어.
(b) 하지만 왜? 넌 그들이 범인을 잡는 걸 도울 수도 있잖아.
(c) 반면에,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d)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난 네 편이야.

가이드라인 (d)에서 However는 복합관계부사인데, 이어지는 관계절에서 do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However가 아닌 Whatever를 써야 한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put A in danger** A를 위험에 처하게 하다 **support** 지지하다

12 (a) 피칸은 텍사스의 주목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자란다. (b) 그렇긴 하지만 피칸 나무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c) 한 가지는, 봄철에 방출하는 꽃가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d) 그리고 가을에는 많은 나무들이 방울 형태의 끈적한 꽃가루를 방출해서, 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가이드라인 (d)에서 which가 이끄는 관계절에 주어 없으므로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이때 전치사 wit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만 와야 하므로 which 앞에 전치사 with를 빼야 한다.

pecan 피칸(아메리카산 견과류의 일종) **state tree** (주를 상징하는) 주목 **that said** 그렇긴 하지만 **pose a problem** 문제를 야기하다 **pollen** 꽃가루 **release** 방출하다 **severe** 심한 **droplet** 작은 물 방울 **sticky** 끈적한

1 (a) 2 (b) 3 (c) 4 (c) 5 (d)
 6 (d) 7 (a) 8 (b) 9 (b) 10 (b)
 11 (d) 12 (c)

- 1 A: 오늘 저녁에 산책 가자.
 B: 일기 예보에서 그때 비가 올지도 모른대.

가이드라인 문맥상 '~일지도 모른다'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가능성, 추측을 나타내는 may가 알맞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이므로 may rain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c)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go for a walk 산책 가다 **forecast** 일기 예보

- 2 A: 네 모자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B: 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가이드라인 문맥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우므로 (b)가 알맞다. need not 대신 don't have to를 써도 된다.

- 3 A: 카일이 아직도 네 책을 돌려주지 않았니?
 B: 지난주에 돌려줘야 하는데.

가이드라인 과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유감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should have p.p.를 쓴 (c)가 정답이다. (b)는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d)는 '돌려줬음이 틀림없다'는 뜻이지만, He와 return의 관계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는 될 수 없다.

- 4 A: 우리가 목을 호텔방을 이미 예약했어.
 B: 그렇다면, 내가 또 예약하지 말아야겠다.

가이드라인 빈칸 뒤의 better not과 연결되어 '예약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로 어울리는 것은 (c) had이다. had better는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뜻이고, 부정은 뒤에 not을 붙인다.

book 예약하다

- 5 A: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생각해요?
 B: 판매를 늘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빈칸 뒤에 well과 호응할 수 있는 것은 (d) may이다. may well은 '~할 것 같다'라는 뜻이다.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 **sales** 매출

- 6 만약 의사가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면, 환자는 대체 약품을 선택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If절에 had p.p.로 보아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다. 따라서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have p.p.>가 되어야 하므로 (d) would have chosen이 정답이다.

side effects 부작용 **patient** 환자 **alternative** 대안의 **medication** 약품

- 7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연합국을 물리쳤다면 오늘날 세계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if절은 had p.p.로 보아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다. 하지만 주절은 today로 보아 현재의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므로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하는 혼합 가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Axis (powers) 추축국(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일본, 이탈리아로 이루어진 삼국 동맹국) **defeat** 쳐부수다 **the Allies** 연합국

- 8 이사회에서 비철 씨를 CEO로 승진시킨다면, 그는 금융 분야의 경험을 살려 회사를 부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If절의 과거 동사로 보아,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절에도 <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의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야 하므로 (b)가 정답이다.

board 이사회 **promote** 승진시키다 **financial** 재정(금융)의 **debt** 빚, 부채

9 한 번의 단순한 부주의한 행동이 없었더라면, 찰스 굿이 어는 가항 고무를 발명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가이드라인 주절의 might have p.p.로 보아, 가정법 과거완료로 구문이다. 빈칸은 문맥상 '~가 없었더라면'이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If it had not been for나 If를 생략하고 도치된 Had it not been for를 쓴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carelessness 부주의 **invent** 발명하다 **vulcanized rubber** 가항 고무

10 마거릿은 지난 금요일 밤 자선 파티에서 오빠가 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가이드라인 wish가 이끄는 가정법 구문이다. wished라는 과거 동사보다 더 이전의 일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형태인 had p.p.를 써야 한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politely 공손하게 **charity banquet** 자선 파티

- 11 (a) 우리 데이터를 모두 재확인했는데 어떤 오류도 없었어요.
(b) 알겠어요, 우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가 된 것 같군요.
(c) 저를 팀원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d)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 (d)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 없었더라면 ...하지 못했을 거다)이므로, If절은 weren't를 hadn't been으로, 주절은 can을 could로 바꿔야 한다.

double check 재확인하다 **mistake** 실수 **officially** 공식적으로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견, 대성공

12 (a) 셴블라 재단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새로운 국내 본사를 개설하게 된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b) 이번 건설 공사는 여러분의 넉넉한 기부 덕택에 가능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c) 우리 재단은 후원자 여러분들이 없으셨다면 그렇게 훌륭한 건물을 짓지 못했을 겁니다. (d)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 기념 행사를 반드시 준비할 것이며,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c)에서 기부금을 모아 건물을 지은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could never afford는 could never have afforded로, were it not은 had it not been으로 고쳐야 한다.

foundation 재단 **headquarters** 본사 **generous** 아끼워하지 않는 **contribution** 기부 **supporter** 후원자 **organize** 조직하다 **celebratory** 기념하는 **stay tuned** 계속해서 채널을 고정하다

- 1 (c) 2 (b) 3 (a) 4 (b) 5 (c)
 6 (c) 7 (c) 8 (c) 9 (a) 10 (a)
 11 (c) 12 (c)

1 A: 필요한 비품 있어요?
 B: 네, 프린터에 종이가 별로 남아 있지 않네요.

가이드라인 paper는 물질명사로서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으로 쓰지 않으며 much나 little의 수식을 받으므로 (c)가 정답이다.
supply 재고품, 비품

2 A: 테드와 일하는 것을 왜 싫어하죠?
 B: 그가 최근에 계속 의심스러운 결정을 해와서요.

가이드라인 series는 '연속되는 것'을 가리키며,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다. 따라서 '일련의, 잇따른'이라는 뜻의 a series of를 이루는 (b)가 정답이다.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다 **questionable** 의심스러운

3 A: 나한테 할 말이 있나요, 사라?
 B: 클린턴 씨는 분이 전화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 앞에는 원래 관사를 붙이지 않지만 '~라는 사람'이라는 뜻일 때는 부정관사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4 A: 영업 회의에 몇 명이나 왔어요?
 B: 아, 수백 명은 참석한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수백 명, 수천 명 등 막연한 수를 나타내는 것은 복수형으로 뒤에 전치사 of를 수반한다. 따라서 hundreds of people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특정한 숫자를 표현한 (c) a[one] hundred people은 전치사를 덧붙이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conference 회의 **in attendance** 참석한

5 A: 저 아이가 내게 한 말이 믿기지 않아요.
 B: 부모가 예의를 더 잘 가르쳐야겠군요.

가이드라인 manner는 단수일 때는 '방식, 태도'라는 뜻이고, 복수일 때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빈칸에는 '예절'이라는 뜻이 어울리고, 비교급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으므로 (c)가 정답이다.

6 토머스 밀퍼드의 <첫눈에>는 1982년에 출간되어 바로 성공을 거두었다.

가이드라인 추상명사에는 원래 부정관사가 붙지 않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사람, 사물을 나타낼 때는 붙일 수 있다. a success가 '성공한 사람, 성공작'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c)가 정답이다.
publish 출간하다 **instant** 즉각적인

7 양국은 평화 조약에 서명한 이후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term이 '사이, 관계'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둘 이상이 관계된 것이므로 복수형으로 쓴다. '~와 관계가 좋다'라고 할 때 be on good terms with라고 하므로 (c)가 정답이다.
sign 서명하다 **peace treaty** 평화 조약

8 작년 이맘때 이후로, 석유 가격이 배럴당 거의 30달러가 올랐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배럴당, 1배럴마다'라는 뜻이 되어야 한다. '~당, 매 ~마다(per)'라는 뜻을 나타낼 때 단위 앞에 부정관사를 붙이므로 (c)가 정답이다.

9 홍수나 지진이 일어날 경우, 도시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가이드라인 '~을 타고'라는 뜻으로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교통수단 앞에 관사 없이 바로 by를 쓴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하지만 같은 뜻으로 on the subway, on a bus처럼 쓸 수도 있다.

in case of ~의 경우에 **flood** 홍수 **earthquake** 지진

10 일부 이웃 주민들은 새로운 제한 속도를 지지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했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부사절의 주어인 some과 대구를 이루어, '어떤 사람들은 ~,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라는 뜻으로 이어진다. 이때 some과 others를 쓰므로 (a)가 정답이다.

speed limit 제한 속도

11 (a) 이거 누구 집이에요? 이 가방들은 정말 무겁네요!
(b) 제 건데, 카메라 장비로 가득 차 있어요.
(c)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d) 전 전문 사진작가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이드라인 (c)에서 gear는 '특정 활동에 필요한 장비'라는 뜻으로, 물질명사이다. 따라서 many gears는 much gear로 고쳐야 한다.

luggage 짐 **equipment** 장비 **gear** 기어; 장비 **professional** 전문적인

13 (a) 전형적인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은 특정한 기능을 담당한다. (b) 상승부는 갈등을 소개하고 그 주변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c) 그 다음,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절정이 오는데, 여기가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d) 마지막으로, 결말에 다가가는 하강부는 독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이드라인 (c)에서 part를 수식하는 most exciting은 형용사의 최상급이므로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야 한다.

typical 전형적인 **be composed of** ~으로 이루어지다 **specific** 특정한 **function** 기능 **hook** 유혹하다, 끌어내다 **conflict** 갈등 **tension** 긴장 **climax** 절정 **falling action** 하강부

1 (d) 2 (a) 3 (b) 4 (a) 5 (c)
6 (b) 7 (b) 8 (c) 9 (a) 10 (c)
11 (c) 12 (d)

- 1 A: 이 재무 프로그램 어때요?
B: 솔직히,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find의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가 들어가야 알맞다. <find+목적어+형용사>는 '목적어가 ~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d)가 정답이다. 빈칸 뒤의 to부정사는 hard를 수식하는 어구이다.

honestly 솔직히

- 2 A: 요트를 살까 생각 중이야.
B: 유지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던데.

가이드라인 B에서 maintaining boats가 that절의 주어이고 빈칸은 이에 대한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a)는 -ly로 끝나서 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비용이 드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sailboat 범선, 요트 **maintain** 유지하다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costing** 비용 산출

- 3 A: 이 페인트 도료를 어떻게 발라야 하죠?
B: 붓을 이용해서 표면을 완전히 덮으세요.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뒤에 나오는 동사 cover를 수식하는 어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부사인 (b)가 알맞다.

apply 바르다 **sealer** 초벌칠용의 도료 **surface** 표면 **complete** 완전한 **completion** 성취

- 4 A: 새로 나온 액션 영화가 보고 싶어요.
B: 안타깝게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가이드라인 빈칸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여 의미가 통하는 부사를 골라야 한다. (a) that이 '그렇게, 그 정도로'라는 뜻의 부사로 쓰여 형용사를 수식하므로 정답이다. (b) such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다.

nearby 가까운, 가까이

- 5 A: 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B: 네, 요즘 통 만나지 못했네요.

가이드라인 문맥상 '요즘'이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c)가 정답이다. late는 형용사와 부사로 모두 쓰여 '늦은, 늦게'의 뜻인 반면, lately는 '요즘'이라는 뜻의 부사이므로 구별하여 알아둬야 한다.

run into ~와 우연히 마주치다

- 6 도급업자는 향나무로 갑판을 건설하는 것이 소나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싸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building the deck out of cedar와 빈칸 뒤의 using pine을 비교하는 내용이므로 비교 구문이 들어가야 알맞다. 따라서 <비교급+than>으로 이루어진 (b)가 정답이다.

contractor 계약자 **deck** 갑판 **cedar** 향나무 **pine** 소나무

- 7 미국 남북전쟁은 미국 군인들에게 단연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었으며, 총 625,000명이 희생되었다.

가이드라인 비교의 대상이 없으므로 deadly의 최상급인 the deadliest를 쓰는 것이 알맞다. 최상급은 much, by far 등이 수식하므로 (b)가 정답이다.

conflict 전투, 갈등 **result in** ~의 결과로 되다 **deadly** 치명적인 **by far** 단연

- 8 캘리포니아 해안의 미국 삼나무는 세계 어느 종의 나무보다 더 높이 자란다.

가이드라인 <비교급+than any other>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빈칸에는 비교급 표현인 taller than이 와야 하므로 (c)가 정답이다.

coastal 해안의 **redwood** 미국 삼나무

9 4분기 동안, 랭던 사의 매출은 주요 경쟁업체보다 네 배 나 더 빨리 증가했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네 배 더 빠르게'라는 뜻이므로 비교급 **faster than** 앞에 '네 배'라는 뜻의 **four times**를 덧붙인 (a)가 정답이다. (b)는 순서를 바꿔서 **four times as fast as**라고 하면 가능하다.

quarter 분기 **competitor** 경쟁업체

10 모차르트는 당대의 다른 어떤 작곡가들보다 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가이드라인 비교급을 사용하여 최상급 의미를 나타낸 문장이다. **than** 뒤에 나오는 비교 대상이 단수이면 **any other**를 쓰고, 복수이면 **all the other**를 쓰는데, 빈칸 뒤에 복수 명사인 **composers**가 나오므로 (c)가 정답이다.

envy 부러워하다 **composer** 작곡가

11 (a) 이건 집에서 가장 쓸모 없는 선반이에요.
(b) 왜 그걸 사용하는 걸 싫어해요?
(c) 내가 달기에는 벽에 너무 높이 있어서요.
(d) 낮추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요.

가이드라인 **highly**는 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어 '대단히, 매우'라는 뜻이다. 따라서 (c)에서 위치상 '높게'라고 할 때는 부사 **high**를 써야 한다. **high, fast, late** 등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

shelf 선반 **place** 놓다, 두다 **lower** 낮추다

12 (a) 어떤 신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탱고를 추는 것도 이론적인 가르침과 규칙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b) 한번 춤을 시도해 보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 (c) 대신에,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이 춤의 기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친절한 선생을 찾아라. (d) 그 후에는, 진지하게 연습하면 할수록 더 빨리 향상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d)는 뒤에 **the quicker**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the+비교급, the+비교급>(~하면 할수록 더...하다) 구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he most seriousness**를 **the more seriously**로 고쳐야 한다.

physical 신체의 **require** 요구하다 **knowledgeable** 지식 있는 **instruction** 가르침 **discouraged** 낙담한 **attempt** 시도하다 **performance** 수행, 공연 **friendly** 친절한 **basics** 기초

1 (c) 2 (a) 3 (d) 4 (c) 5 (d)
 6 (d) 7 (d) 8 (a) 9 (a) 10 (d)
 11 (b) 12 (c)

- 1 A: 우리 서로 못 본 지 4년 됐어.
 B: 틀림없이 그때 이후로 변한 것이 많겠지.

가이드라인 문맥상 '~이후로'라는 뜻으로 현재완료 시제와 어울리는 것은 (c) since이다. during이나 for 다음에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야 하므로 알맞지 않다. 같은 뜻으로 from then on(그 이래로)을 쓸 수도 있다.

bet 장담하다

- 2 A: 네 마케팅 제안서는 기한이 언제까지야?
 B: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끝낼 시간이 있어.

가이드라인 얼핏 목요일까지만 끝내면 된다는 뜻으로 (c) by를 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의 끝낼 때까지 가질(I have) 수 있는 시간을 지칭하므로, 온전히 목요일까지를 나타내는 (a) until이 들어가야 한다.

proposal 제안서

- 3 A: 아직 여행가방을 싸야 해.
 B: 서둘러, 출발 시간이 한 시간도 남지 않았으니까.

가이드라인 '지금부터 ~후에'라는 뜻으로 시간을 나타낼 때 전치사 in을 쓰므로 (d)가 정답이다. in less than an hour는 '지금부터 한 시간이 채 안 되어'라는 뜻이다.

pack (짐을) 싸다 **suitcase** 여행가방

- 4 A: 난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전부 적으려고 노력해.
 B: 필기하는 동안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가이드라인 문맥상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c) while이 알맞다. 부사절에서 (주어+be동사(you're))는 생략할 수 있다.

write down 적어 놓다 **pay attention** 주의하다

take notes 필기하다

- 5 A: 매트와 함께 축구 경기에 갔었니?
 B: 응, 난 축구 보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말이야.

가이드라인 축구 경기에 갔다는 말과 원래 축구를 도저히 못 본다는 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d) even though가 들어가야 알맞다.

stand 참다, 견디다

- 6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공급품들을 풀어서 그것들을 서로 다른 종류별로 간추리느라 분주했다.

가이드라인 빈칸 앞의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unpacking과 병렬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형태인 organizing이 들어가야 하며, 타동사인 organize는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d)가 정답이다.

volunteer 자원봉사자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unpack** (짐을) 풀다 **category** 범주

- 7 강풍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두 팀은 경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d) In spite of가 정답이다. 빈칸 뒤에 절이 아닌 명사구가 나오므로 접속사인 (b) Although는 들어갈 수 없다.

- 8 카타리나는 다리가 부러졌을 때, 석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했다.

가이드라인 '~동안'이라는 뜻으로 빈칸 뒤에 숫자를 포함한 기간이 나올 때 전치사 for를 쓴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wear a cast 깁스를 하다

9 보좌관은 그 정치인이 돈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 빈칸 이하의 절은 **claimed**의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주어, 보어, 목적어 등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 **that**이 들어가야 한다.

aide 측근, 보좌관

10 트래프턴 씨는 어렸을 때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분명 기르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좋아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므로, '비록 ~이지만'이라는 뜻의 (d) **though**가 알맞다. 빈칸 뒤에 절이 나오므로 전치사인 (a) **despite**는 쓸 수 없다.

permit 허락하다

11 (a) 이런 사업 회의에 참석하는 게 너무 지겨워요.
(b)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갈 수밖에 없잖아요.
(c) 알아요, 최신 발전 상황을 따라잡아야 하니까요.
(d) 그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당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가이드라인 (b)는 '~하든 말든'이라는 뜻의 부사절이므로 **if**가 아닌 **Whether**를 써야 한다.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명사절을 이끈다.

keep up with ~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다 **latest** 최신의 **development** 발달, 성장

12 (a) 9월 14일 오전 8시에 귀하의 건물에 전기가 차단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b) 귀하의 지역 전력망에 대해 직원들이 정기 정비를 하는 동안 차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c) 당일 정오까지나, 아니면 다음 날 다시 돌아와 업무를 마칠 계획입니다. (d)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55-6607로 샌드라 오크 너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 (c)는 **either A or B**를 이용한 구문이다. 이때 **A**와 **B**는 동등한 형태를 취해야 하므로 **complete**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or** 다음에 **return**만 와야 한다. 따라서 **or** 뒤에 **they**를 빼는 것이 맞다.

notice 공고 **inform** 알리다 **electricity** 전기 **shut off** 차단하다 **property** 건물 **routine** 일상의 **maintenance** 정비 **power grid** 전력망

1 (d) 2 (a) 3 (a) 4 (d) 5 (b) 6 (a)
 7 (c) 8 (d) 9 (b) 10 (d) 11 (b) 12 (a)
 13 (b) 14 (a) 15 (c) 16 (a)

- 1 A: 그 정치가는 왜 곤경에 빠져 있나요?
 B: 뇌물을 받았대요.
 (a) 관찰하다 (b) 부인하다
 (c) 결심하다 (d) 받다

가이드라인 bribe(뇌물)을 목적으로 취해 정치가가 곤경에 빠진 이유가 되는 선택지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인 (d) accepted이다. accepted 대신 took을 써도 된다.

in trouble 곤경에 빠진 **bribe** 뇌물 **observe** 관찰하다 **deny** 부인하다 **resolve** 결심하다. (문제 등을) 해결하다

- 2 A: 매트가 다리를 저는 것 같아요.
 B: 스키를 타다가 부상당했어요.
 (a) 부상을 입히다 (b) 내밀다
 (c) 막다 (d) 전하다

가이드라인 limp(다리를 절다)의 뜻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선택지 중에 다리를 저는 것과 관계있는 단어는 '부상당하다'라는 뜻인 (a) injured이다. 동의어로 hurt, wound가 있다.

limp 다리를 절다 **injure** 부상당하다 **extend** (손·발 등을) 뻗다. 내밀다 **block** 막다 **convey** 전하다. 운반하다

- 3 A: 돈을 얼마나 모을 작정이예요?
 B: 자선 기금으로 600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싶어요.
 (a) (자금을) 모으다 (b) 찌르다
 (c) 잡다 (d) 채택하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빈칸에는 A가 말한 collect와 연관된 단어가 와야 하므로 '모금하다'라는 뜻의 (a)가 정답이다. raise는 이 밖에 '들어서다, 기르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므로 함께 알아두자.

aim to ~할 작정이다 **collect** 모금하다 **charity** 자선 **raise** (돈을) 모으다, 마련하다 **stick** 찌르다 **adopt** 채택하다

- 4 A: 칼에게 오늘 멋져 보인다고 말했어요.
 B: 그 말에 자신감이 한층 높아지겠네.
 (a) 덮다 (b) 보류하다
 (c) 초래하다 (d) 돋우다

가이드라인 멋져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감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신장시키다'라는 뜻의 (d) boost가 정답이다.

self-esteem 자부심, 자존감 **reserve** 예약하다, 보류하다 **incur** 초래하다 **boo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 5 A: 의사가 뭐라고 해요?
 B: 하루에 두 번 직접 약을 투여해야 해요.
 (a) 빈둥빈둥 보내다 (b) 투여하다
 (c) 회복시키다 (d) 상담하다

가이드라인 의사가 할 수 있는 말로, drug(약)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약을 투여하다'라는 뜻인 (b) administer이며, '관리하다, 집행하다'라는 뜻도 있음에 유의한다.

lounge (시간을) 빈둥빈둥 보내다 **administer** (약을) 투여하다 **revive** 회복시키다 **consult** 상담하다, 찾아보다

- 6 A: 이 크림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B: 바르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a) 바르다 (b) 암시하다
 (c) 대답하다 (d) 공급하다

가이드라인 크림 사용법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크림·약 등을' 바르다라는 뜻의 (a) apply가 정답이다.

apply (크림·약 등을) 바르다 **imply** 암시하다 **reply** 대답하다 **supply** 공급하다

- 7 A: 학기말 리포트에 철자 오류가 너무 많아.
 B: 그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a) 극복하다 (b) 호의를 보이다
 (c) 영향을 미치다 (d) 보충하다

가이드라인 grade(성적)를 목적으로 취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택지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의 (c) affect이다.

term paper 학기말 리포트 **overcome** 극복하다 **favor** 호의를 보이다 **affect** 영향을 미치다 **supplement** 보충하다

- 8 A: 오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B: 제 계좌로 돈을 좀 넣어야 해요.
 (a) 경보를 발하다 (b) 착수하다
 (c) 부과하다 (d) 이체하다

가이드라인 은행 직원과 고객 간의 대화로, 은행 업무와 관련된 단어를 우선적으로 찾아 보면 '이체하다'라는 뜻의 (d) transfer가 정답이다.

account 계좌 **alert** 경보를 발하다 **undertake** 착수하다 **impose** 부과하다 **transfer** 옮기다

- 9 어려운 시합이었지만 레이븐스가 상대 팀을 물리치고 경기에 이겼다.
 (a) 때리다 (b) 패배시키다
 (c) 달다 (d) 지키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빈칸에는 뒤의 won과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와야 하므로 '패배시키다'라는 뜻인 (b) beat가 정답이다. 동의어로는 defeat가 있다.

opponent 상대 **tournament** 경기 대회 **beat** 패배시키다, 이기다

- 10 식물 및 동물 종들이 진화하는 이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이주하다 (b) 처방하다
 (c) 회복시키다 (d) 적응하다

가이드라인 빈칸 뒤의 to와 어울려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사를 고른다. '~에 적응하다'라는 뜻의 adapt to를 이루는 (d)가 정답이다. adapt는 '개작하다, 각색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므로 함께 알아두자.

evolve 진화하다 **migrate** 이동하다 **prescribe** 처방하다
restore 회복시키다 **adapt** 적응하다

- 11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의 경력 초반에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a) 회복하다 (b) 승인하다
 (c) 겪다 (d) 용서하다

가이드라인 목적어 resolutions(결의안)을 목적으로 취해 가장 의미가 잘 통하는 동사는 '승인하다'라는 의미인 (b) endorsed이다.

resolution 결의안 **endorse** (공개적으로) 지지하다, 보증하다
undergo (특히 안 좋은 일을) 겪다 **forgive** 용서하다

- 12 자선 단체 직원들은 대중으로부터 기부금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a) 간청하다 (b) 처리하다
 (c) 설립하다 (d) 추정하다

가이드라인 자선 단체 직원들이 donations(기부금)와 관련하여, 무슨 목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닐지 생각해 보면 '간청하다'라는 뜻의 (a) solicit가 가장 적절하다.

door to door 집집마다 **donation** 기부 **solicit** 간청하다, 얻으려고 하다 **address** (어려운 문제 등을) 다루다, 처리하다 **institute** 세우다, 설립하다 **assume** 추정하다

- 13 잭슨 씨는 그 행사에서 연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막판에 거절했다.
 (a) 연기하다 (b) 거절하다
 (c) 재개하다 (d) 경쟁하다

가이드라인 연설 요청을 받았지만 역접의 접속사 but이 다음에 왔으므로 앞서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거절하다'라는 의미인 (b) declined이다.

be invited to ~하도록 요청받다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suspend** 연기하다 **decline** 거절하다 **resume** 재개하다 **compete** 경쟁하다

- 14 화학과 교수는 그 대학원생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a) 이의를 제기하다 (b) 충족시키다
 (c) 단언하다 (d) 유지하다

가이드라인 마지막의 saying they were false로 보아, 빈칸에는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의 (a) challenged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chemistry 화학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 **findings** (조사·연구) 결과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indulge** (욕구 등을) 채우다, 충족시키다 **affirm** 단언하다 **retain** 유지하다

- 15 기업가는 보다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a) 연기하다 (b) 용이하게 하다
 (c) 인식하다 (d) 위태롭게 하다

가이드라인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라고 이어져야 의미상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c) recognized이다.

entrepreneur 사업가, 기업가 **postpone** 연기하다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 16 듣자 하니, 시설 관리 직원이 공장 내부의 공기 청정도를 체크하는 동안 가스 누출을 발견한 것 같다.
 (a) 관찰하다 (b) 옹호하다
 (c) 자극하다 (d) 참고 표시를 하다

가이드라인 while과 빈칸 사이에 he[she] was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으로, 시설 관리 직원이 가스 누출을 발견하는 것은 공기 청정도를 어떻게 하는 동안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면 '관찰하다'라는 뜻의 (a) monitoring이 정답이다.

apparently 듣자 하니 **maintenance** 관리, 유지 **leak** 누출 **monitor** 감시하다, 관찰하다 **advocate** 옹호하다 **stimulate** 자극하다 **reference** 참고 표시를 하다

1 (a) 2 (b) 3 (c) 4 (c) 5 (a) 6 (b)
 7 (c) 8 (c) 9 (b) 10 (c) 11 (d) 12 (b)
 13 (a) 14 (a) 15 (d) 16 (c)

- 1 A: 내가 택한 길로 가면 폭풍을 뚫고 갈 수 있을 거야.
 B: 제발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해.
 (a) 주의 (b) 특권
 (c) 기쁨 (d) 요인

가이드라인 폭풍을 헤치고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심(caution)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a)이다. with caution은 '조심하여, 신중하게'라는 뜻의 관용표현이므로 알아두자.

caution 조심, 주의 **privilege** 특전, 특권 **factor** 요인

- 2 A: 직원들이 왜 모두 떠나고 있나요?
 B: 파업할 건가 봐요.
 (a) 결과 (b) 파업
 (c) 변화 (d) 붕괴

가이드라인 선택지 중에서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는 이유가 될 만한 것은 '파업'이라는 뜻의 (b)이다. strike는 '파업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며 go on strike는 take strike actio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effect 영향, 결과 **shift** 변화, 교대 근무 **crash** 충돌, 붕괴

- 3 A: 회의가 4시 30분에 있어요, 맞죠?
 B: 의사 일정에 따르면 그게 맞습니다.
 (a) 청구서 (b) 우선 사항
 (c) 의사 일정 (d) 조사

가이드라인 회의 시간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의사 일정'이라는 뜻의 (c)이다. agenda는 이 밖에 '의제, 안건'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bill 청구서, 계산서 **priority** 우선 사항 **agenda** 의사 일정, 의제 **survey** 조사, 측량

- 4 A: 협상을 끝낸 걸 축하해요!
 B: 하지만 그쪽에서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안 했어요.
 (a) 서식 (b) 기준
 (c) 계약서 (d) 판

가이드라인 B가 역접의 접속사 But으로 시작했으므로 A와 상반되는 말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한다. 협상은 끝났지만 서명을 아직 못했다고 했고, 그 서명하는 대상은 '계약서'가 되 것이므로 (c) contract가 정답이다.

close the deal 협상을 끝낸다, 거래를 맺다 **format** 편형, 서식 **edition** (초판·재판의) 판

- 5 A: 지금까지 타본 것 중 가장 불편한 비행이었어요.
 B: 네, 환불을 할 수 없는 게 유감이군요.
 (a) 환불 (b) 의견 일치
 (c) 한계 (d) 잔고

가이드라인 비행이 불편했다면 환불(refund)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이를 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a)가 정답이다.

pity 유감, 애석한 일 **refund** 환불 **consensus** 의견 일치, 합의 **balance** 잔고, 잔액

- 6 A: 오늘 밤 우리랑 춤 추러 오지 않을래?
 B: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할 과제가 있어.
 (a) 절차 (b) 과제
 (c) 수수료 (d) 데이트

가이드라인 초대 제의에 Sorry로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춤 추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만한 단어가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과제'라는 뜻의 (b) assignment이다.

due ~하기로 되어 있는 **procedure** 절차 **assignment** 과제 **fee** 수수료

- 7 A: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요.
 B: 그건 독감의 일반적인 증세예요.
 (a) 관세 (b) 승진
 (c) 증상 (d) 수치

가이드라인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은 독감의 일반적인 증상(symptom)이라고 해야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c)이다. run[have] a temperature(열이 나다)는 have a f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hurt 아프다 **run a temperature** 열이 나다 **flu** 독감 **tariff** 관세 **promotion** 승진, 홍보 **symptom** 증상 **figure** 수치

- 8 A: 짐을 찾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B: 세관을 통과해야 해요.
 (a) 균중 (b) 벌금
 (c) 세관 (d) 규칙

가이드라인 여행용 짐(luggage)을 통해 공항이나 항구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짐을 찾은 후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면 빈칸에는 '세관'이라는 뜻의 (c)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custom이 '세관'을 뜻할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는 점에 유의한다.

pick up 찾다, 집어 들다 **luggage** 짐, 수하물 **go through** 빠져 나가다 **fine** 벌금 **customs** (공항·항구의) 세관

9 현대의 여행자들은 항공사를 고를 때 수많은 선택권이 있다.
 (a) 목적지 (b) 무수함
 (c) 책임 (d) 논쟁

가이드라인 a myriad of(= myriads of)가 a lot of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빈칸 뒤의 options와 어울리는 것은 '수많은'이라는 뜻의 (b)이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에 대해서는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 **a myriad of** 수많은 **dispute** 논쟁, 분쟁

10 랜드스터 제조회사의 최고 경영진 몇 명이 회사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a) 간격 (b) 재단
 (c) 중역 (d) 임명

가이드라인 be charged with(~의 혐의로 기소되다)의 주어는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이사, 중역'이라는 뜻의 (c) executives이다. chief executive officer는 '최고경영자(CEO)'를 뜻한다.

be charged with ~의 혐의로 기소되다 **foundation** 토대, 재단 **executive** 경영 간부, 이사 **appointment** 약속, 임명

11 중국에서 파괴적인 지진이 일어나자 전세계에서 구호품이 쏟아져 들어왔다.
 (a) 기준 (b) 소포
 (c) 재료 (d) 구호

가이드라인 빈칸 뒤의 supplies(물자)와 함께 관용적으로 쓰는 명사를 고르도록 한다. 지진이 발생한 곳에는 구호 물품이 쏟아질 것이므로 '구호 물자'라는 어구를 이루는 (d) relief가 정답이다.

devastating 파괴적인 **criteria** 표준, 기준 **package** 꾸러미, 소포 **ingredient** 재료, 성분 **relief** 구호(품)

12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지도자들이 내일 기후 변화 정상 회담에 참석할 것이다.
 (a) 정의 (b) 정상
 (c) 공연 (d) 휴식

가이드라인 빈칸 뒤의 meeting(회의)과 함께 관용적으로 쓰이는 명사를 고르도록 한다.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했으므로 '정상 회담'이라는 뜻의 summit meeting을 이루는 (b)가 정답이다.

definition 정의 **summit** 정상 **performance** 공연 **recess** 휴회, 휴정

13 <하트퍼드 데일리 타임즈> 1면에 광고를 내는 데 약 500달러의 비용이 든다.
 (a) 광고 (b) 예방책
 (c) 추론 (d) 요건

가이드라인 place와 짝을 이루어 쓰이는 명사를 고르는 문제로, '광고를 내다'라는 뜻의 place an advertisement를 이루는 (a)가 정답이다. place 대신 put이나 run을 써도 된다.

charge (요금·값을) 청구하다 **place an advertisement** 광고를 내다 **front page** (신문의) 제1면 **precaution** 예방책 **inference** 추론 **requirement** 요건

14 그 군인은 문제를 직접 대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지휘 계통을 깨뜨렸다.
 (a) 지휘 (b) 가식
 (c) 주장 (d) 유지

가이드라인 군인이 문제를 직접 보고함으로 인해 깨뜨려지는 것은 '지휘 체계'일 것이므로 빈칸 앞의 the chain of와 짝을 이루는 명사인 (a) command가 정답이다.

chain of command 지휘 계통 **colonel** 대령 **pretense** 가식, 위장 **allegation** 혐의, 주장 **maintenance** 유지, 정비

15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군인 묘지를 방문함으로써 자국의 전쟁 영웅들을 기린다.
 (a) 이득 (b) 방어
 (c) 도움 (d) 존경

가이드라인 빈칸 앞뒤의 pay와 to 사이에서 collocation을 이루는 명사는 (d)로, pay respect to는 '~에게 경의를 표하다, 기리다'라는 뜻의 관용표현이다.

assistance 도움, 원조 **pay respect to** ~에게 경의를 표하다

16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실험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a) 꺼림 (b) 제의
 (c) 가능성 (d) 순환

가이드라인 형용사 strong의 수식을 받아 문맥상 자연스러운 뜻을 이루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뜻의 (c) likelihood이다. 주의할 점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high나 strong을 쓰지만, 가능성이 '낮다'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little을 쓴다.

reluctance 싫음, 꺼림 **proposal** 제안 **likelihood** 가능성 **circulation** 순환, 유통

1 (b) 2 (b) 3 (b) 4 (d) 5 (a) 6 (a)
 7 (a) 8 (c) 9 (b) 10 (c) 11 (d) 12 (d)
 13 (c) 14 (b) 15 (d) 16 (b)

- 1 A: 당신 예술 작품이 정말 맘에 들어요.
 B: 솔직한 의견이었으면 좋겠군요.
 (a) 적절한 (b) 솔직한
 (c) 수익성이 좋은 (d) 생생한

가이드라인 칭찬해 주는 말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솔직한'이라는 뜻의 (b) 솔직하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appropriate 적절한 **candid** 솔직한 **lucrative** 수익성이 좋은 **vivid** 생생한, 선명한

- 2 A: 제품 설명서를 갖고 있나요?
 B: 아뇨, 하지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a) 앉아 있는 (b) 이용 가능한
 (c) 공정한 (d) 부차적인

가이드라인 제품 설명서를 갖고 있다는 물음에 일단 No라고 대답했으므로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available)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manual 설명서, 안내 책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 입수할 수 있는 **impartial** 공정한 **secondary** 부차적인

- 3 A: 샌디를 왜 싫어해요?
 B: 그녀의 노골적인 편견이 정말 불쾌해요.
 (a) 독점적인 (b) 명백한
 (c) 실행 가능한 (d) 대안이 되는

가이드라인 prejudices를 수식하는 알맞은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로, 문맥상 '명백한, 공공연한'이라는 뜻의 (b) overt가 알맞다.

prejudice 편견 **offend** 불쾌하게 하다 **exclusive** 독점적인, 배타적인 **overt** 명백한, 공공연한 **feasible** 실행 가능한 **alternative** 대안이 되는

- 4 A: 당신이 탈 비행기가 연착되는 것 같아요.
 B: 네, 비행기에 기계상의 결함이 있어요.
 (a) 상업적인 (b) 경솔한
 (c) 지역의 (d) 기계상의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비행기가 연착되는 이유가 될 만한 단어가 와야 하므로 '기계상의'라는 뜻의 (d) mechanical이 정답이다. 참고로 mechanic은 '정비공'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commercial 상업적인 **frivolous** 경솔한, 사소한 **mechanical** 기계와 관련된

- 5 A: 당신이 다니는 기관은 직원이 몇 명인가요?
 B: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기밀 사항이에요.
 (a) 비밀의 (b) 가장 기본적인
 (c) 적대적인 (d) 후회하는

가이드라인 몸 담고 있는 기관의 직원이 몇 명이라는 물음에 먼저 I'm sorry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는 그 정보를 밝힐 수 없다거나 밝힐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기밀의'라는 뜻의 (a) confidential이 정답이다.

confidential 비밀의, 기밀의 **rudimentary** 가장 기본적인 **hostile** 적대적인 **remorseful** 후회하는

- 6 A: 케빈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B: 그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게 분명해요.
 (a) 자격이 있는 (b) 사로잡힌
 (c) 추천된 (d) 계획적인

가이드라인 고용(hire)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빈칸에는 '자격이 있는'이라는 뜻의 (a) qualified가 적절하다. He is highly qualified for the work라고 하면 '그는 그 일에 적임자다'라는 뜻이다.

captivate ~의 마음을 사로잡다, 매혹하다 **suggest** 제안하다, 추천하다 **design** 계획하다, 고안하다

- 7 A: 당신 아내가 브라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나요?
 B: 맞아요, 일류 학교죠.
 (a) 일류의 (b) 만성적인
 (c) 근본적인 (d) 잠정적인

가이드라인 school을 수식하는 가장 알맞은 형용사는 문맥상 '일류의'라는 뜻의 (a) prestigious이다. 동의어로 renowned, notable 등이 있다.

prestigious 명망 있는, 일류의 **chronic** 만성적인 **fundamental** 근본적인 **tentative** 잠정적인

- 8 A: 헨리가 당신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B: 그의 친절함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a) 정리된 (b) 특허받은
 (c) 감동받은 (d) 축적된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야 자연스러우므로 '감동을 받은'이라는 뜻의 (c) touched가 정답이다. 참고로 touching은 '감동적인'이라는 뜻이므로 구분하도록 한다.

help out 도와주다 **arranged** 정리된 **patented** 특허를 받은 **touched** 감동받은 **amassed** 축적된

- 9 비옥한 토지 덕분에 그 지역은 작물을 직접 키워 먹고 살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었다.
- (a) 노골적인 (b) 비옥한
(c) 앞서 언급된 (d) 소모품의

가이드라인 live off the land의 의미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어떤 토지여야 작물을 직접 키워 먹고 살기에 완벽한지를 생각해 보면 빈칸에는 '비옥한'이라는 뜻의 (b) fertile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live off the land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다 **blatant** 노골적인, 뻔한 **fertile** 비옥한 **alluded** 앞서 언급한 **consumable** 소비할 수 있는, 소모품의

- 10 반군들은 독재자 타도에 성공한 후 임시 정부를 세웠다.
- (a) 정지된 (b) 만장일치의
(c) 임시의 (d) 이전의

가이드라인 반군이 독재자를 타도한 후 어떤 정부를 설립할지를 생각해 보면 빈칸에는 '임시의, 과도의'라는 뜻의 (c) interim이 알맞다.

rebel 반군, 반역자 **set up** 설립하다 **overthrow** 타도하다, 전복시키다 **dictator** 독재자 **stationary**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unanimous** 만장일치의 **interim** 임시의, 과도의 **prior** 이전의

- 11 카터 교수는 매우 엄격하지만 또한 매우 공정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 (a) 욕심 많은 (b) 풍부한
(c) 세심히 통제된 (d) 엄격한

가이드라인 문맥상 빈칸에는 칭찬의 말인 fair(공정한)와는 반대로 비난하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a)와 (d) 중에 답이 있는데, 문맥상 '욕심 많은' 보다 '엄격한'이 fair와 대조를 이루는 데 더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d)이다.

have a reputation for ~로 유명하다 **avid** 욕심 많은 **abundant** 풍부한 **controlled** 세심히 통제된 **strict** 엄격한

- 12 전문가들은 그 화산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 (a) 한물간 (b) 즉각적인
(c) 분명한 (d) 휴지 상태에 있는

가이드라인 휴화산을 dormant volcano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정답은 (d)이다. 활화산, 사화산은 각각 active volcano, extinct volcano로 표현하므로 함께 알아두자.

expert 전문가 **volcano** 화산 **obsolete** 더 이상 쓸모 없는, 한물간 **instantaneous** 즉각적인 **explicit** 분명한, 명백한 **dormant** 휴면기의, 활동을 중단한

- 13 이안의 식료품점은 잠재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주말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 (a) 사실 같지 않은 (b) 헛된
(c) 장래의 (d)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이드라인 가게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는 것은 예비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장래의, 유망한'이라는 뜻의 (c) prospective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improbable 사실 같지 않은, 일어날 듯하지 않은 **futile** 헛된, 소용 없는 **prospective** 장래의, 유망한 **simplistic** 지나치게 단순화한

- 14 <뉴스 투데이>는 현대의 쟁점 사안들을 읽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웹사이트이다.
- (a) 어조가 강한 (b) 현대의
(c) 예비의 (d) 피상적인

가이드라인 issues(사안, 문제)를 수식하는 알맞은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로, 웹사이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빈칸에는 '현대의'라는 뜻의 (b) contemporary가 적절하다.

emphatic 어조가 강한, 단호한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preliminary** 예비의 **superficial** 피상적인

- 15 경찰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그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 (a) 논란이 많은 (b) 경건한
(c) 인간미 없는 (d) 확실한

가이드라인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경찰이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확실한, 실질적인'이라는 뜻의 (d) tangible이 알맞다.

suspect 용의자 **commit** (범죄 등을) 저지르다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pious** 경건한, 독실한 **impersonal** 인간미 없는 **tangible** 분명히 실재하는, 확실한

- 16 대통령의 연설은 의회에서 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a) 곡선의 (b) 즉각적인
(c) 걸출한 (d) 절대적인

가이드라인 reaction(반응, 반발)을 수식하는 알맞은 형용사는 '즉각적인'이라는 뜻의 (b) immediate이다. 동의어로는 instant가 있다.

provoke 유발하다, 야기하다 **curved** 곡선의, 약간 굽은 **preeminent** 걸출한, 뛰어난 **absolute** 절대적인

Actual Test 1

1 (d)	2 (c)	3 (d)	4 (c)	5 (c)	6 (c)	7 (d)	8 (c)	9 (d)	10 (a)
11 (d)	12 (c)	13 (b)	14 (c)	15 (c)	16 (c)	17 (a)	18 (b)	19 (c)	20 (d)
21 (b)	22 (d)	23 (a)	24 (a)	25 (a)	26 (b)	27 (d)	28 (c)	29 (b)	30 (b)

Part 1

1

- A 이 비품 주문은 언제 했죠?
- B 어제 엘리에게 하라고 했어요.

가이드라인 사역동사 had의 목적격 보어를 묻는 문제로,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나, 수동이나에 따라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를 쓴다. 목적어인 엘리가 주문을 하는 것이므로 능동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동사원형인 (d)가 알맞다.

supply 비품 make an order 주문하다

2

- A 네가 휴가를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
- B 빌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날 설득했거든.

가이드라인 빈칸은 persuade의 목적격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persuade는 'A에게 B하라고 설득하다'라고 할 때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c)가 정답이다.

take a vacation 휴가를 얻다 persuade 설득하다
reconsider 재고하다

3

- A 어젯밤에 록 콘서트는 정말 신났어.
- B 내 동생도 거기 갔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

가이드라인 앞 문장을 받아 '~도 역시 그렇다'라고 할 때 앞 문장이 긍정이면 So를, 부정이면 Neither를 써서 <So[Neither]+조동사[be동사]+주어> 구문을 쓴다. 여기서 B가 받는 문장인 A가 긍정이므로 So를 쓴 (d)가 정답이다.

4

- A 또 상하이로 출장 가나요?
- B 그건 제 상사의 결정에 달렸어요.

가이드라인 문장 앞에 주어와 술어 동사가 모두 있으므로 빈칸은 boss를 수식하는 준동사가 되어야 한다. 선택지 중에서 준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c)이며, 나머지는 모두 술어 동사의 형태이므로 알맞지 않다.

on business 사업상 be up to ~에 달려 있다

5

- A 수상을 축하해요!
- B 당신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 과거의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완료(조동사의 과거형+have p.p.) 문장이다. 문맥상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조동사 could가 가장 알맞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congratulations on ~을 축하하다 win an award 수상하다

6

- A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교육시킬 건가요?
- B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꺼이 가르칠 거예요.

가이드라인 빈칸은 teach의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절에서 wants의 주어 역할을 하는 어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복합 관계대명사 (c) whoever(~하는 누구든지)가 알맞다.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7

- A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 요구를 승인했어.
- B 넌 운이 좋은 줄 알아야 돼.

가이드라인 빈칸은 consider의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이고, 그 뒤에 온 fortunate는 목적격 보어이다. '나는 자신을 운이 좋다고 여겨야 한다'라는 뜻이므로 목적어와 주어가 동일하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경우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쓰므로 (d)가 정답이다.

approve 승인하다 home loan 주택 담보 대출

8

- A 교수님, 시험에 관한 교수님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B 미안하지만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구나.

가이드라인 '~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spend+시간+(in) 동명사>의 형태를 쓰므로 빈칸에는 동명사인 (c)가 들어가야 한다.

policy 방침

9

- A 초과 근무를 해야 하나요?
- B 직원 전체가 그 제안에 반대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 '~에 반대하다'라는 뜻의 be against에서 be동사의 형태를 묻고 있다. 여기서 주어 The entire staff는 의미상 복수지만 직원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로 받는 (d)가 정답이다. 상태를 나타내는 be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으므로 (a)와 (b)는 정답이 아니다.

staff 직원 be against ~에 반대하다

10

- A 네가 만났을 때 다니엘라는 어땠어?
- B 안 좋은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

가이드라인 의미상 '별로, 그다지'라는 뜻으로 부정문에 쓸 수 있는 부사는 (a) much이다. (d) by far는 '훨씬, 단연코'라는 뜻으로 최상급을 수식한다.

Part 2

11

거리 시위자들은 매우 화가 나서 가게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 빈칸 뒤의 that절과 호응할 수 있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so+형용사+that절> 구문이 '매우 ...해서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d)가 정답이다.

protestor 시위자 hurl 집어던지다

12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레스트 라이트' 같은 수면제를 복용하세요.

가이드라인 If절에서 it은 가주어이고 to get 이하가 진주어이므로 빈칸은 to get의 의미상 주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목적격> 또는 <of+목적격>으로 나타내므로 (c)가 정답이다.

sleeping aid 수면제

13

재향군인의 날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기회이다.

가이드라인 빈칸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명사는 (b) those이다.

Veterans Day 재향군인의 날 pay respect to ~에 경의를 표하다 defense 방어, 수비

14

할인 판매를 발표하지마자 그 가게는 싸고 좋은 상품을 찾으려는 쇼핑객들로 가득 찼다.

가이드라인 no sooner A than B는 'A 하자마자 B하다'라는 뜻으로, No라는 부정어가 문두에 왔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절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따라서 the sale was announced에서 be동사와 주어를 도치시킨 (c)가 정답이다.

be filled with ~으로 가득 차다 bargain 싸게 산 물건

15

서양고추냉이를 날것으로 대량 섭취하면 신체가 독성 쇼크에 빠질 수 있다.

가이드라인 can cause가 문장의 동사이고 그 앞부분은 주어에 해당한다. (b), (d)를 제외한 나머지는 형태상 주어가 될 수 있다. 완료형 동명사인 (a)는 의미상 어색하므로 (c)가 정답이다.

raw 날것의 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go into ~로 되다 toxic shock 독성 쇼크

16

장군은 몇 무리의 군사를 숲 속에 숨겨 두고 주력 부대가 약해 보이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여기서 appear는 '~처럼 보인다, ~인 듯하다'라는 뜻으로 seem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보어가 필요하므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 (c)가 알맞다.

general 장군 main force 주력 부대 weaken 약화시키다

17

북극곰은 불안해 보였지만 동물원 사육사들은 아무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가이드라인 agitate는 '동요시키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exciting-excited, surprising-surprised와 마찬가지로 분사형이 형용사처럼 쓰인다. 여기서는 북극곰이 뭔가에 의해 '동요되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과거분사인 (a)가 알맞다.

polar bear 북극곰 **zookeeper** 동물원 사육사 **agitated** 불안해 하는, 동요된

18

패배한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쳤고 적들은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가이드라인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with+명사+분사> 구문이다. 이때 분사는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 능동이면 현재분사를,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쓴다. their enemies가 pursue의 주체이므로 현재분사인 (b)가 들어가야 한다.

defeated 패배한 **flee** 도망하다 **battlefield** 전장 **closely** 밀접하게, 바짝 **pursue** 뒤쫓다

19

스포츠 전문 사진기자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다.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뒤에 나오는 비교급 형용사 harder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다.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을 수식하는 데 쓰이는 부사로는 much, still, far 등이 해당되므로 (c)가 정답이다.

photographer 사진작가 **average** 평균의 **realize** 실감하다, 깨닫다

20

화성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것은 이 시점에서 착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프로젝트라고 결론이 났다.

가이드라인 부사 too가 포함된 어구의 어순을 묻는 문제이다. too는 so와 마찬가지로 <too[so]+형용사+a(n)+명사> 어순으로 쓰이므로 (d)가 정답이다.

astronaut 우주비행사 **determine** 결정하다
undertake 착수하다, 떠맡다

21

가장 격렬한 전투가 세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에 양쪽은 물러나서 군을 재정비했다.

가이드라인 '세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므로 기간을 나타내는 (b) for가 알맞다. (c) during도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during summer처럼 뒤에 특정 기간이 나올 때 쓰고, three hours, ten days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기간 앞에는 for가 온다.

intense 격렬한 **last** 지속되다 **fall back** 후퇴하다
regroup 재정비하다

22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하나도 발견하지는 못했다.

가이드라인 빈칸 앞뒤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문맥상 '~이긴 하지만, 비록 ~할지라도'라는 뜻으로 (d)가 가장 알맞다. (a) despite는 전치사이므로 절을 이끌 수 없다.

astronomer 천문학자 **maintain** 주장하다 **planet** 행성
Galaxy 은하계 **have yet to** 아직 ~하지 않다

23

돌이켜 보면 투자자들은 주택 담보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가이드라인 Looking back on it(돌이켜 보면)이라는 어구로 보아,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맥상 '~했어야 했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should have p.p.가 어울리므로 (a)가 정답이다.

look back on 돌이켜 보다 **mortgage** 주택 담보 대출
collapse 붕괴하다

24

한 학생이 대학 홈페이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신고했지만 사용자 두 명 중 한 명은 오류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선택지로 보아 '사용자 두 명 중 한 명꼴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very other+단수 명사>가 '하나 걸러'라는 뜻이므로 (a)가 정답이다. every other day는 '이틀에 한 번'이라는 뜻이다.

error-free 실수가 없는

25

자가 출판 능력은 판매할 시장이 없는 경우 거의 가치가 없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뒤에 나오는 명사 value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value는 '가치'라는 뜻의 추상명사이므로 (a) little로 수식하는 것이 알맞다. (of+추상명사)는 형용사처럼 쓰이므로, of value는 '가치 있는', of little value는 '가치 없는'이라는 뜻이 된다.

self-publish (a book) 자가 출판

Part 3

26

- (a) A: 오늘 아침에 앰버가 출근하는 것을 못 봤어.
- (b) B: 응, 그녀는 이번 주에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 (c) A: 왜 난 늘 이런 소식을 맨 마지막에 듣는 거지?
- (d) B: 그것에 관한 회람이 지난주에 모두한테 왔는데.

가이드라인 attend는 '~에 참석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나온다. 따라서 (b)의 attending of에서 전치사 of를 빼야 한다. 자동사로 착각해 전치사를 붙이기 쉬운 동사로 discuss(~에 대해서 논의하다), marry(~와 결혼하다) 등이 있다.

27

- (a) A: 이 수프는 정말 못 먹겠어. 게다가 따뜻하지도 않아.
- (b) B: 중업원을 부를 테니까 말하도록 해.
- (c) A: 아냐, 됐어.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 (d) B: 하지만 수프가 이상하면 다시 가져가라고 해야지.

가이드라인 <동사+부사>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의 목적으로 대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d)에서 send back it은 send it back이 되어야 맞다.

disgusting 구역질 나는 **make a scene** 소란 피우다

28

- (a) 노스캐롤라이나의 해터러스 곳에 있는 등대는 높이가 200피트이며, 그 기원이 18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 그것은 원래 바다에서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지속적인 해안선 침식으로 1900년대 말이 되자 만조 지역에 놓이게 되었다. (c) 등대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1999년에 2,870피트 가량 내륙의 더 안쪽으로 옮겨졌다. (d) 그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등대가 여정을 견뎌내고 무사할지 불확실했다.

가이드라인 (c)의 분사구문 Having saved the lighthouse에서 생략된 주어와 주절의 주어 it가 가리키는 the lighthouse가 되므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해 의미상 어색하다. 따라서 '등대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를 써서 To save the lighthouse로 고쳐야 한다.

lighthouse 등대 **date back to** ~로 거슬러 올라가다
originally 원래 **steady** 꾸준한 **shoreline** 해안선 **erosion** 침식
high tide 만조 **inland** 내륙(으로) **massive** 대규모의
uncertain 불확실한

29

- (a)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다른 부대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암호로 보내졌다. (b) 그렇게 한 이유는 군사 계획을 적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였다. (c) 부호를 작성하는 대신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나바호족의 언어를 사용했다. (d) 이 '암호'는 전쟁 말기 동안 사용되었는데, 일본인들은 전혀 해독하지 못했다.

가이드라인 (b)에서 for how처럼 전치사와 관계부사는 함께 쓸 수 없다. 따라서 how를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야 한다. 전치사 for를 빼고 선행사인 The reason에 맞는 관계부사 why를 써서 The reason why라고 해도 된다.

code 암호 **keep A secret** A를 비밀로 하다 **make up** 구성하다 **tribe** 부족

30

- (a) 청나라 때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많은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b) 1765년부터 1769년 사이에 버마 왕국을 상대로 네 차례의 작전이 실행됐다. (c) 청나라 황제는 그의 군대가 버마를 쉽게 무찌를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d) 7만 명이 넘는 병사와 네 명의 지휘관을 잃고 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

가이드라인 (b)에서 주어인 campaigns는 '실행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를 쓰고 있고 주어가 복수이므로 be동사 were를 써서 carried out을 were carried out으로 고쳐야 한다.

launch 착수하다 **carry out** 실행하다 **force** 부대 **defeat** 쳐부수다 **Burmese** 버마 사람 **commander** 지휘관
surrender 항복하다

Actual Test 2

1 (b)	2 (a)	3 (a)	4 (c)	5 (b)	6 (a)	7 (b)	8 (c)	9 (c)	10 (c)
11 (a)	12 (c)	13 (c)	14 (a)	15 (d)	16 (d)	17 (a)	18 (b)	19 (b)	20 (c)
21 (d)	22 (d)	23 (c)	24 (b)	25 (b)	26 (b)	27 (a)	28 (b)	29 (b)	30 (d)

Part 1

1

- A 아직 오는 중이니?
- B 네가 전화했을 때 막 출발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가이드라인 '막 ~하려고 하다'라는 뜻의 <be about to+동사원형> 구문을 묻는 문제로, 형태상 (b)가 알맞다. be on the point of -ing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be on one's way 가는[오는] 도중이다

2

- A 전에 밴드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 B 아뇨, 그런 얘긴 하지 않았는데요.

가이드라인 빈칸은 보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뒤에 나오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로, 빈칸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3

- A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늘리는 게 어때요?
- B 그건 흥미로운 두 가지 제안이군요.

가이드라인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로,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뜻으로 ideas를 수식하기에 알맞은 것은 현재분사형인 (a)이다.

lower 낮추다

4

- A 그 상자가 언제 배달됐는지 모르겠어.
- B 오늘 아침 일찍부터 보이던데.

가이드라인 appear는 '나타나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고, this morning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보아 과거 시제를 써야 하므로 (c)가 정답이다.

deliver 배달하다

5

- A 오늘 세일할 때 비디오 게임을 구입하면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살 수 있어?
- B 구입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어.

가이드라인 간접의문문의 어순을 묻는 문제이다. what was the deal?이라는 의문문이 목적어로 쓰일 때는 간접의문문이 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b)가 정답이다.

get two for one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사다 deal 거래 (조건)

6

- A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 B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내가 선물한 거야!

가이드라인 문맥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내가 준 것'이라는 뜻으로,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a) from이 알맞다.

7

- A 이번 주 토요일에 야구시합을 못할 것 같아.
- B 년 코치님께 당장 말씀 드려야겠다.

가이드라인 had better는 '~하는 게 좋겠다.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므로 (b)가 적절하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의 부정 표현은 <had better not+동사원형>이다.

immediately 즉시, 당장

8

- A 로저스 씨는 지금 어디 있죠?
- B 서재에서 책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가이드라인 ■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분사를 취한다.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나, 수동이나에 따라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목적어인 him이 look의 주체가 되므로 능동을 나타내는 현재분사가 들어가야 알맞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study 서재

9

- A 캐런이 그 관리직을 받아들일겠지?
- B 그럴 거라고 생각해.

가이드라인 ■ 주어가 I가 아닌 It임에 주의한다. It는 가주어이고 that절이 진주어이므로 '~라고 추정된다'라는 뜻의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주어가 I라면 I assume that she will이라고 하면 된다.

management 관리, 경영 **assume** 추측하다

10

- A 그래서, 어제 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 B 그는 전말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

가이드라인 ■ entire는 '전체, 모든'이라는 뜻이지만 전체를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an이나 the가 수식어로 붙는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an entire day(하루 종일), the entire staff(직원 전체)처럼 쓰인다.

Part 2

11

정부 대변인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대해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대응했다.

가이드라인 ■ as if는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뒤에 가정법을 수반한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responded)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들어가야 하고, 능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a)가 정답이다.

spokesperson 대변인 **respond to** ~에 대응하다 **stock market crash** 주식시장 붕괴

12

넉넉한 의료보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약물 치료를 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have p.p.>가 왔으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건절은 had p.p.가 되어야 하는데, If it had not been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조동사를 도치시킨 형태인 (c)가 정답이다.

generous 후한, 넉넉한 **medication** 약물 (치료)

13

과학자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세 번이나 확인했다.

가이드라인 ■ 동사 avoid의 목적어를 묻는 문제이다. avoid는 목적어 동명사를 취하므로 형태상 (b)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고르도록 한다. 완료형인 (a)는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고, (d)는 수동태를 나타낸다. 문맥상 주절과 같은 시제이며 능동이 되어야 하므로 (c)가 정답이다.

calculation 계산

14

교통 혼잡 때문에 차량 행렬은 한 시간이나 늦게 출발점에 도착했다.

가이드라인 ■ late는 '늦은, 늦게'라는 뜻으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 따라서 '너무 늦게'라는 뜻으로는 too late라고 하므로 (a)가 정답이다. (c) lately는 '최근에'라는 전혀 다른 뜻의 부사이므로 유의한다.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 **vehicle** 차량

15

주택 소유자들은 최소 십 년에 한 번씩 주택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 ■ have가 '~하도록 하다'는 의미의 사역동사로 쓰이고 있으므로 빈칸은 목적격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나, 수동이나에 따라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를 쓴다. 목적어 their house는 '감정을 받는' 수동의 관계에 있으므로 과거분사 (d)가 정답이다.

appraise 평가하다, 감정하다

16

예산이 전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팀은 광고를 조기에 끝낼 수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 분사구문을 묻고 있다. '남아 있는 돈이 전혀 없다'라는 뜻의 *There is no money left*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으로,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한다. 따라서 주절과 다른 주어를 명시하고 *is*를 분사로 바꾼 (d)가 정답이다.

have no choice but to ~할 수밖에 없다

17

직원 의료 보장 중에서 레드 플랜이 둘 중에서 더 저렴하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둘 중 더 ~한'이라는 뜻이므로 비교급이 들어가야 한다. 비교급은 *more affordable*이고 이 경우처럼 비교급 뒤에 *of the two*가 올 경우 비교급일지라도 앞에 *the*를 붙인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option 선택권 **affordable** 값이 알맞은

18

매일 50달러의 생활 보조비가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 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make A available*은 'A를 사용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이 되면 동사는 *be made available*이 되고 '주어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living allowance 생계비

19

권리장전이 추가됐을 때 미 헌법은 생긴 지 딱 2년이 되었다.

가이드라인 과거 특정 시점까지 계속됨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시제가 되어야 알맞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Constitution 헌법 **the Bill of Rights** 권리장전 **add** 추가하다

20

편집장 자리는 이미 정해졌지만 이사회는 한동안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편집장 자리는 이미 정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나 현재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알맞고, 자리는 '채워지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완료수동태인 (c)가 정답이다.

editor-in-chief 편집장 **board** 이사회 **official** 공식적인 **announcement** 공지, 발표

21

교직원 파티가 끝난 후에 해리스 교수가 성공적으로 파티를 주관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가이드라인 *so*나 *such*가 포함된 어구의 어순을 묻는 문제로, *such*는 관사 앞에 위치하므로 (d)가 올바른 어순이다. *so*는 <*so*+형용사+*a(n)*+명사>의 어순으로 쓰이므로 (c)가 *so great a*라면 답이 될 수 있다.

faculty 교수단, 교직원 **host** 주최자, (파티의) 주인

22

관심 있는 지원자는 5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그 자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까지'라는 뜻의 전치사가 필요하다. *until*과 *by* 둘 다 이에 해당되지만 *until*은 그 시점까지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by*는 그 시점까지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나타낸다. 신청서 제출은 그 시점까지 완료되는 동작이므로 (d) *by*를 써야 한다.

candidate 지원자 **submit** 제출하다 **application** 신청서

23

캠던 하드웨어는 구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다.

가이드라인 빈칸 앞에 있는 *not only*와 함께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구문을 이루는 (c)가 적절하다.

impressive 인상적인 **selection** 선택된 물건들

24

정치인들이 논쟁을 그만두고 중요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문맥상 *It*는 가주어이고 빈칸 이하의 절이 진주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b) *that*이 알맞다.

essential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argue** 논쟁하다 **legislation** 법률

25

대통령은 노년층 지원이 보장되는 새로운 의료 제도를 도입했다.

가이드라인 빈칸 앞의 *that*은 *a new healthcare plan*과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 접속사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that*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어구가 필요하며, <(the+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로 쓰이므로 '연장자, 노인들'을 뜻하는 (b)가 정답이다.

healthcare plan 의료 제도 **guarantee** 보장하다 **the elderly** 노인들

Part 3

26

- (a) A: 다음 학기에 네 과목을 수강하려면 한 과목이 더 필요해.
- (b) B: 경제학이 작년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 중 하나야.
- (c) A: 잘 모르겠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 (d) B: 그럴 수도 있지, 어떤 교수님인지에 달려있어.

가이드라인 economics는 '경제학'이라는 뜻으로, 학문명은 형태는 복수이지만 단수 취급한다. 따라서 (b)에서 동사 were는 단수형인 was가 되어야 한다.

semester 학기 depend on ~에 달려 있다 professor 교수

27

- (a) A: 어젯밤 본 영화 어땠어?
- (b) B: 솔직히 말하면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
- (c) A: 그거 뜻밖인걸, 평은 좋던데 말이야.
- (d) B: 연기는 설득력이 없고 스토리는 어처구니가 없어.

가이드라인 (a)에서 movie는 어젯밤에 본 특정 영화(that you saw last night)를 뜻하기 때문에 부정관사 a가 아닌 정관사 the를 써야 한다.

awful 형편없는 review 비평 unconvincing 설득력이 없는

28

- (a) 단순히 대기 온도만 측정해서 지구온난화의 실재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b) 알려지지 않은 많은 요인들이 특정한 때에 얼마나 춥고 더운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c) 대신에, 과학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지구 온도 상승이 가져오는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인다. (d) 이러한 영향력으로는 해수면 상승, 서로 다른 생태계 간의 이동, 빙하 용해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 (b)에서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절에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소유격인 of which를 which나 that으로 바꾼다.

existence 존재, 실제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measure 측정하다 factor 요인, 요소 determine 결정하다
unnoticeable 눈에 띄지 않는 migration 이동 ecosystem
생태계 melting 용해 glacier 빙하

29

- (a) 서기 약 500년부터 1000년까지, 잉글랜드는 여러 개의 소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b) 그중에서, 웨섹스 왕국은 다른 어떤 왕국들보다 영향력이 더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c) 웨섹스 왕국은 잉글랜드 중남부에 자리를 잡고 수세기 동안 점차 확대되었다. (d) 웨섹스 바로 위쪽에 머시아 왕국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노섬브리아 왕국이 있었다.

가이드라인 <비교급+than+any other+단수 명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다'라는 뜻으로 최상급을 의미한다. 이때 any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를 써야 하므로 (b)의 realms는 realm이 되어야 한다.

approximately 대략 a number of 다수의 influential
영향력이 큰 realm 왕국 occupy 점령하다, 차지하다
gradually 점차 expand 확장하다

30

- (a) 중남미 정글에는 100종이 넘는 독화살 개구리가 살고 있다. (b) 이 개구리는 포식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피부에서 유독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c) 그 지역의 일부 원주민들은 이 독을 사냥용 화살 끝에 바른다. (d) 화살이 동물을 맞추면 독이 동물을 기절시키거나 죽게 만든다.

가이드라인 (d)에서 주절에 나오는 동사 knock과 kill은 접속사 or로 이어지는 대등한 관계이다. 전체적인 시제가 현재시제이므로 kills의 시제에 맞춰 would knock을 knocks로 바꾸어야 한다.

poison dart frog 독화살 개구리 poisonous 유독한
substance 물질 predator 포식자 region 지역 dart 화살
knock out 기절시키다

Actual Test 3

1 (c)	2 (c)	3 (c)	4 (d)	5 (a)	6 (d)	7 (b)	8 (d)	9 (a)	10 (c)
11 (d)	12 (a)	13 (c)	14 (d)	15 (c)	16 (b)	17 (c)	18 (c)	19 (c)	20 (b)
21 (a)	22 (d)	23 (b)	24 (c)	25 (b)	26 (c)	27 (c)	28 (a)	29 (b)	30 (a)

Part 1

1

- A 노숙자들에게 줄 통조림 식품을 좀 사려고요.
- B 정말 인정이 후하시군요.

가이드라인 It는 주어이고 빈칸 이하가 진주어로, 선택지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to부정사인 (c)이다. 빈칸 앞의 of you는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보통 <for+ 목적격>을 쓰지만 앞에 형용사로 generous, kind처럼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구가 올 때는 of를 쓴다.

canned goods 통조림 식품 **the homeless** 노숙자들
generous 너그러운, 후한

2

- A 우리 주에는 취업 기회가 많지 않아.
- B 대체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이드라인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반인일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관용구처럼 쓰이는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을 묻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해서'라는 뜻으로 (c)가 정답이다.

job opportunity 취업 기회

3

- A 버트가 제시간에 이 보고서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B 그의 업무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라인 문맥상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어야 한다. need는 조동사와 본동사로 쓸 수 있는데, 빈칸 뒤에 동사원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동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동사의 부정은 뒤에 not을 붙이므로 (c)가 정답이다.

on time 제시간에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서 걱정하다

4

- A 이번 주말에 스키 타러 갈까?
- B 그전에 눈이 더 오지 않으면 안 가.

가이드라인 빈칸 앞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unless가 있음에 주의한다.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므로 (d)가 정답이다.

go sking 스키 타러 가다 **unless** 만약 ~이 아니라면

5

- A 변호사를 만나 봤어요?
- B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가이드라인 문맥상 현재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가 들어가야 하므로 (a)가 정답이다.

somehow 아무래도, 어쨌든 **afford** ~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

6

- A 이번 주말에 비가 얼마나 올까요?
- B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4인치 가량 내린대요.

가이드라인 빈칸 뒤에 by the time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은 형태 상으로는 현재지만 의미상 미래를 뜻한다. by the time은 그 시점까지의 완료를 뜻하므로 빈칸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완료를 나타내는 미래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will have p.p. 형태인 (d)가 정답이다.

by the time ~할 때까지는

7

- A 켈리와 댄은 어디 있어?
- B 여기로 오는 중인데 교통체증이 심한가 봐.

가이드라인 두 사람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늦는 것 같다는 뜻으로 단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b)가 정답이다.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다.

hit bad traffic 교통체증이 심하다

8

- A 제 자전거를 어디에 두었어요?
- B 저기 벽에 기대 놓았어요.

가이드라인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문맥상 '벽에 기대어 서'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d) against가 알맞다.

9

- A 벤이 정말 우리집 열쇠를 가져갔어?
- B 개가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

가이드라인 지각동사 se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분사를 취하며, pick up처럼 <동사+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는 목적으로 대명사가 올 때 pick it up과 같이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a)가 정답이다.

10

- A 홍콩은 확실히 붐비는 도시야.
- B 좁은 공간에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깐.

가이드라인 엄청 많다는 뜻으로 '수백 만의'라는 뜻의 (c)가 알맞다.

crowded 붐비는 pack 꽉 채우다

Part 2

11

환자가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절에 could have p.p.로 보아 가정법 과거완료구문이다. 따라서 조건절은 had p.p.를 쓴 (d)가 정답이다.

patient 환자

12

의사는 환자의 문제점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가이드라인 빈칸 앞에 전치사 in이 있으므로 to부정사가 아닌 동명사가 와야 하며,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므로 (a)가 정답이다.

make an error 잘못을 저지르다 recognize 알아차리다

13

마이클의 사퇴 결정은 그가 받는 높은 연봉을 고려할 때 다소 뜻밖이었다.

가이드라인 빈칸에는 뒤에 나오는 surprising을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다. 선택지 중에서 가능한 것은 '다소, 약간'이라는 뜻의 (c) rather이다. (d) much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수식할 때 쓰인다.

resign 사임하다 consider 고려하다 generous 넉넉한, 후한 salary 봉급

14

범죄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범인은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이드라인 분사구문을 묻는 문제로,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the criminal이다. '붙잡혔다'라는 의미의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d)이다. 완료형 분사(having p.p.)를 쓴 것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scene of crime 범죄 현장 criminal 범인 jail 감옥

15

기자 회견에서 모든 기자들은 주지사가 언제 물러날지를 질문하고 싶어 했다.

가이드라인 간접의문문의 어순을 묻는 문제로, 일반 의문문과 달리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이므로 (c)가 정답이다.

press conference 기자 회견 governor 주지사 step down 사임하다

16

동물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가이드라인 Regardless of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문맥상 '~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라는 뜻이 되어 자연스러우므로 (b)가 정답이다. (d) if도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주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절을 이끌 수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unethical 비윤리적인 lock 가두다

17

그 영화 감독은 앞으로 그가 만드는 영화에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들을 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어순을 묻는 문제이다. 빈칸 앞이 완전한 문장이므로 빈칸은 앞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나 또는 부사구가 되어야 한다. '그가 만드는 영화에'라는 뜻으로 (c)의 부사구가 올바른 어순이다. he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director (영화·연극의) 감독 **unknown** 알려지지 않은 **in the future** 앞으로

18

소년은 연필을 깜빡했을 뿐 아니라, 학교에 책을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렸다.

가이드라인 선택지로 보아 빈칸은 뒤에 but (also)와 호응하는 not only가 포함된 구문이다. not과 같은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므로 (c)가 올바른 어순이다.

forget 잊다 **bring** 가져오다 **as well** ~도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19

모두가 열대 우림을 없애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들은 이를 계속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빈칸 앞뒤 절이 역접 관계이므로,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c) yet이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clear 제거하다 **rain forest** 열대 우림

20

그 새 테스트가 당뇨병 치료의 기준이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It is believed 뒤에는 that절이 와야 한다. (c)는 '~인지 아닌지'의 뜻이 되므로 동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that절 다음에 주어(the new test)+동사(will become)로 이어지는 (b)가 정답이다.

standard 표준, 기준 **care** 치료, 보살핌 **diabetics** 당뇨병

21

되도록 빨리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 의미상 도로가 '보수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선택지 중에 수동태는 (a)와 (d)인데, 과거완료인 (d)는 알맞지 않으므로 (a)가 정답이다. (It is+형용사+that) 구문에서 important, necessary와 같은 형용사가 올 때, that절에는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repair 보수하다 **as soon as possible** 되도록 빨리(ASAP)

22

세계 보건 기구의 캠페인 덕분에 천연두는 세계에서 사라진 첫 번째 주요 질병이 되었다.

가이드라인 빈칸은 became의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다. 보어로 온 the first major disease가 to부정사인 to be removed의 수식을 받고 있는 형태로 (d)가 정답이다.

thanks to ~덕분에 **smallpox** 천연두 **remove** 제거하다 **major** 주요한 **disease** 질병

23

사람들은 언어라는 정교한 의사소통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다르다.

가이드라인 문맥상 '~라는 점에서'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b) in that이 적절하다. given that은 '~을 고려하자면'이라는 뜻으로 Given that his intention was good, I will forgive him(그의 의도는 좋았다는 것을 고려해서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처럼 사용한다. provided that은 '만약 ~라면'이라는 뜻으로 She will attend the party, provided that her parents let her go(만약 그녀의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그녀는 파티에 참석할 것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differ from ~과 다르다 **creature** 생물, 피조물 **sophisticated** 세련된, 정교한 **communication** 의사소통

24

그녀가 십 년 전 이 주식들을 샀을 때는 전혀 가치가 없었다.

가이드라인 빈칸 앞이 they weren't worth로 부정문이므로 (c) anything이 적절하다.

stock 주식, 증권

25

6개월간 일자리를 찾던 끝에 김벌리는 마침내 멤피스에서 일자리를 하나 구했다.

가이드라인 적절한 대명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앞의 a job을 대신하는 부정대명사 (b) one이 답이 된다. 일자리를 하나 구한 것이 특정 직장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it은 부적절하다.

search for ~을 찾다, 구하다

Part 3

26

- (a) A: 웰치 씨에게 소포 보냈어요?
- (b) B: 보내야 했는지 몰랐어요.
- (c) A: 저한테 물어봤던 거 기억 안 나요?
- (d) B: 아, 맞아요! 잊어버려서 미안해요.

가이드라인 (c)에서 remember는 to부정사가 목적어일 땐 미래로, 동명사가 목적어일 땐 과거로 해석한다. 여기서는 과거에 물어봤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과거를 나타내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to ask를 asking으로 고쳐야 한다.

package 소포, 포장 **be supposed to** ~할 예정이다, ~하기로 되어 있다 **forget** 잊다

27

- (a) A: 하늘을 봐요. 오늘 비가 올 것 같네요.
- (b) B: 어젯밤 뉴스에서 비 소식은 전혀 없었는데요.
- (c) A: 네, 하지만 TV 일기 예보는 틀릴 때가 종종 있어요.
- (d) B: 맞아요. 지난주에도 틀렸잖아요.

가이드라인 (c)에서 주어진 weather reports로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인 is가 나오므로 수일치에 어긋난다. 따라서 복수 동사인 are로 바꿔야 옳다.

often 종종 **weather report** 일기 예보

28

- (a) 미래를 위해 저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퇴직 계좌(IRAs)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b) 기존의 IRA는 매년 불입하는 금액은 비과세이지만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c) 반면에 로스 IRA는 반대로 운용된다. (d) 어떤 종류의 계좌를 선택할지는 은퇴 계획과 더불어 현재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달려 있다.

가이드라인 (a)에서 which 이하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선행사가 people이므로 which를 who로 고쳐야 한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퇴직 계좌

contribute 기부하다 **tax-free** 비과세의 **withdraw** 인출하다
in reverse 거꾸로

29

- (a) 1661년에 아즈텍의 중요한 유물을 스페인으로 싣고 가던 배 한 척이 지중해에서 폭풍우로 침몰했다. (b)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들은 그 유물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유물이 배와 함께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c) 하지만 2002년에 그레고리오 알론조 교수가 스페인 수도원에서 고대 문서가 든 상자 하나를 살펴보고 있었다. (d) 상자 바닥에 놓여 있는 아즈텍 유물을 발견했을 때 그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라!

가이드라인 (b)에서 ought to have p.p.는 '~했어야 했다' (should have p.p.)는 뜻으로 문맥상 어색하다.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의 뜻이 어울리므로 must have p.p.를 써야 한다.

artifact 유물 **sink** 가라앉다 **Mediterranean** 지중해
archaeologist 고고학자 **look through** 살펴보다
ancient 고대의 **text** 글, 문서 **monastery** 수도원

30

- (a) 칼레드 시스템즈는 보스턴 지점에서 분리해 나가 일할 새로운 대리점 영업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b) 지원 가능자는 정보통신 기술 영업에 적어도 3년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c) 브라운 세일즈 앤 어카운트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필수는 아니지만 우대합니다. (d) 지원하려면 이메일을 통해서 칼레드 채용 담당자인 매건 데이비스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이드라인 (a)에서 new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는 retail sales associate로 단수형이므로 관사 a가 필요하다. 뒤에 나오는 sales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tail sales associate 대리점 영업사원 **candidate** 후보자,
지원자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 **via** ~을 통해

Blank memo area for writing.

MEMO





정답 자동 채점

Actual Test 1

수험번호 Registration No.	한글
성명 Name	한자

문제지 번호 Test Booklet No.	
----------------------------	--

감독관확인란	
--------	--

청 해		어 휘		문 범	
Listening Comprehension		Vocabulary		Grammar	
1	0	0	0	0	0
2	0	0	0	0	0
3	0	0	0	0	0
4	0	0	0	0	0
5	0	0	0	0	0
6	0	0	0	0	0
7	0	0	0	0	0
8	0	0	0	0	0
9	0	0	0	0	0
10	0	0	0	0	0
11	0	0	0	0	0
12	0	0	0	0	0
13	0	0	0	0	0
14	0	0	0	0	0
15	0	0	0	0	0
16	0	0	0	0	0
17	0	0	0	0	0
18	0	0	0	0	0
19	0	0	0	0	0
20	0	0	0	0	0
21	0	0	0	0	0
22	0	0	0	0	0
23	0	0	0	0	0
24	0	0	0	0	0
25	0	0	0	0	0

어 휘		문 범	
Vocabulary		Grammar	
1	0	0	0
2	0	0	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2	0	0	0
23	0	0	0
24	0	0	0
25	0	0	0
26	0	0	0
27	0	0	0
28	0	0	0
29	0	0	0
30	0	0	0

독 해	
Reading Comprehension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0	0
11	0
12	0
13	0
14	0
15	0
16	0
17	0
18	0
19	0
20	0
21	0
22	0
23	0
24	0
25	0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D No.	
---------------------------	--

고사실란 Room No.	
------------------	--

수험번호 Registration No.	
--------------------------	--

비밀번호 Password	
------------------	--

좌석번호 Seat No.	
------------------	--

서 약

본인은 필기구 및 기재오류와 답안지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답안작성시 유의 사항

1.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답안을 작성할 경우 수정테이프(수정액, 불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본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마크(III)를 찢거나, 낙서 등으로 인한 훼손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답안은 문항당 정답을 1개만 골라 ●와 같이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기구 오류나 본인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당 관리위원회의 OMR감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르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5. 감독관의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처리됩니다.





정답 자동 채점

Actual Test 2

수험번호 Registration No.	문제지 번호 Test Booklet No.	감독관확인란
성명 Name	한지	

듣 해 Listening Comprehension	어 휘 Vocabulary		문 법 Grammar		독 해 Reading Comprehension	주 민 등 록 번 호 National ID No.	고사실란 Room No.		
	1	2	1	2				1	2
1	26	16	1	16	26	1	16	0	0
2	27	17	2	17	27	2	17	0	1
3	28	18	3	18	28	3	18	0	1
4	29	19	4	19	29	4	19	2	2
5	30	20	5	20	30	5	20	3	3
6	31	21	6	21	31	6	21	4	4
7	32	22	7	22	32	7	22	5	5
8	33	23	8	23	33	8	23	6	6
9	34	24	9	24	34	9	24	7	7
10	35	25	10	25	35	10	25	8	8
11	36	26	11	26		11	26	9	9
12	37	27	12	27		12	27	0	0
13	38	28	13	28		13	28	0	1
14	39	29	14	29		14	29	0	1
15	40	30	15	30		15	30	0	1
16								1	2
17								2	3
18								3	3
19								4	4
20								5	5
21								6	6
22								7	7
23								8	8
24								9	9
25								0	0

듣 해 Listening Comprehension	어 휘 Vocabulary		문 법 Grammar		독 해 Reading Comprehension	수 험 번 호 Registration No.	비 밀 번 호 Password	좌 석 번 호 Seat No.
	1	2	1	2				
1	26	16	1	16	26	000000	000000	1
2	27	17	2	17	27	000001	000001	2
3	28	18	3	18	28	000002	000002	3
4	29	19	4	19	29	000003	000003	4
5	30	20	5	20	30	000004	000004	5
6	31	21	6	21	31	000005	000005	6
7	32	22	7	22	32	000006	000006	7
8	33	23	8	23	33	000007	000007	8
9	34	24	9	24	34	000008	000008	9
10	35	25	10	25	35	000009	000009	0
11	36	26	11	26		000010	000010	1
12	37	27	12	27		000011	000011	2
13	38	28	13	28		000012	000012	3
14	39	29	14	29		000013	000013	4
15	40	30	15	30		000014	000014	5
16						000015	000015	6
17						000016	000016	7
18						000017	000017	8
19						000018	000018	9
20						000019	000019	0
21						000020	000020	1
22						000021	000021	2
23						000022	000022	3
24						000023	000023	4
25						000024	000024	5

서 약

본인은 필기구 및 기계유류와 담인지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안작성시 유의 사항

- 담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색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담안을 정정할 경우 수정테이프(수정액, 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본 담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담인지 하단의 타이밍마크(III)를 찢거나, 낙서 등으로 인한 훼손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안은 문항당 정답을 1개만 골라 ●와 같이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기구 오류나 본인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당 관리위원회의 OMCR관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르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 감독관의 확인이 없는 담안지는 무효처리됩니다.





정답 지도 채점

Actual Test 3

수험번호 Registration No.	
성명 Name	한글 한자

문 제 지 번 호 Test Booklet No.	
-------------------------------	--

감독관확인란	
--------	--

청 해		해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20	20	20	20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24	24	24	24
25	25	25	25

어 휘		문 법	
Vocabulary		Grammar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20	20	20	20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24	24	24	24
25	25	25	25
26	26	26	26
27	27	27	27
28	28	28	28
29	29	29	29
30	30	30	30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사 실 란	
National ID No.		Room No.	
0	0	0	0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수험번호		비밀번호		좌석번호	
Registration No.		Password		Seat No.	
0	0	0	0	1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서 약

본인은 필기구 및 기재오류와 답안지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답안작성시 유의 사항

1.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답안을 정정할 경우 수정테이프(수정액 불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본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답안지 하단의 타이머마크(III)를 찢거나, 낙서 등으로 인한 훼손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답안은 문항당 정답을 1개만 골라 ●와 같이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기구 오류나 본인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당 관리위원회의 OMR판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르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5. 감독관의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처리됩니다.

